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0호 【루계 제24358호】 주체102(2013)년 11월 6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당사업을 1970년대처럼 화선식으로 전환시키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애국의 열정으로 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놓으며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조직들의 전투적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펴주신 김정일애국주의의 불길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서 영원히 타번져야 할 열혈충정의 불길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력사적인 호소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피끓는 심장에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한다는것은 모든 당일군들이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정신, 애국의 숨결로 부강조국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당사업을 진행해나간다는것이다. 당사업이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깃들어있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으로, 인민들의 애국적열의에 의거하는 사업으로 될 때 커다란 성과가 이룩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발현되는 애국적소행들을 귀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해주며 온 사회에 애국의 열풍을 일으켜 누구나 애국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주선을 두어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참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오면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자라난 인민이다. 우리 인민에게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시고 그 어떤 강적과도 싸워 반드시 이기는 법을 배워주신 위대한 스승, 강철의 령장이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를 최고귀감으로 삼고 조국을 사랑해도 불같이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온넋과 심장을 깡그리 바치는 애국적헌신성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하는것이 현시기 당사업의 중요한 목표이다.

모든 당사업이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깃들어있는 애국심을 김정일애국주의로 승화시키기 위한데로 지향될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더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될것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상도 정신도 풍모도 위대한 장군님을 닮은 김정일애국주의자로 준비시켜 우리의 사상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지금 적들은 우리 인민의 사상의식을 흐리게 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김정일애국주의가 꽉 들어차있는 우리 인민에게 썩어빠진 제국주의사상문화가 발붙일 틈은 0.001㎜도 없다. 모든 당사업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될 때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는 백방으로 다져지고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고 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위하여 애국의 성실한 땀을 바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비약과 혁신의 기상을 안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창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는 속에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을 비롯하여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사람들이 강성번영할 미래를 내다보며 애국적헌신성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며 실천의 본보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타 벌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천만대중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이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기대옆이나 포전머리에서 대중과 허물없이 의견을 나누고 대중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소행들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당이 준 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1970년대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속도전의 기상으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온 긍지높은 년대기였다. 새 세기에 희천속도가 창조되여 대고조진군에서 비약이 일어나고 다계단으로 변이 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지게 된것은 김정일애국주의야말로 사회주의조선의 기적창조의 원천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식령속도》창조를 위한 정신력의 근본핵으로 틀어쥐고 일군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리며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마식령스키장건설과 세포등판건설을 비롯하여 대고조전역에서 선군조선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과 경공업부문의 당조직들은 올해농사를 깨끗이 마무리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며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 전력, 석탄, 철도운수를 비롯한 4대선행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고조진군의 선전선동공세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체육, 보건, 문학예술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누구나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양어, 수산업발전과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 사업에 너도나도 떨쳐나서도록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의 불을 걸고 일군들의 사업기풍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도록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있다. 결과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고방식과 일본새를 털어버리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 좋은 경험들이 많이 창조되고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김정일애국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일군들이 실천투쟁에서 애국충정의 열도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기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해 투쟁하는 불굴의 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세포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한 력사적리정표로 되였다. 군중이 있고 당원이 있는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 피줄처럼 뻗어간 당세포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에 애국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다.

모든 당세포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사업조건과 환경에 맞게 옳은 방법론을 세워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어려있는 단위와 초소, 일터와 마을을 비롯하여 그 어디서나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차넘치고 장군님식대로 일하는 기풍이 철저히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을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곧음을 버리지 않는 참대처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는 신념의 인간, 량심의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처럼 청춘시절에 조국이 알고 인민이 기억하는 영웅이 되고 위훈의 창조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더 많은 땀을 흘리게 하여야 한다.

오늘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는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김정일애국주의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로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옥류아동병원과 문수기능회복원에 륜전기재들을 보내시였다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옥류아동병원과 문수기능회복원에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이 끝없이 흘러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의료봉사기지들을 안겨주시고 최신식의료설비들을 마련해주신데 이어 구급소생차와 구급차들, 장애자뻐스를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환자치료를 위한 현대적인 륜전기재들까지 그쯘히 갖춘 옥류아동병원과 문수기능회복원은 명실공히 인민의 재부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들이 5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한광복 당중앙위원회 부장, 옥류아동병원, 문수기능회복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선물전달사가 있었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들에는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우선적으로 안겨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으로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친어버이의 다심한 정이 어려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이 보다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받으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날로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는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뜻을 받들어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일할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세상에 자랑할만 한 의료봉사기지들을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헌신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의료설비와 륜전기재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여 치료예방과 과학연구, 병원운영사업에서 큰 은이 나도록 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고마운 보건시책이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 후대관을 받들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참답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김병률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최고재판소 고문 김병률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5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김정일대원수님회고위원회

스위스에서 결성

김정일대원수님회고 스위스위원회결성식이 10월 31일 바젤에서 진행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가 선출되였다.

결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조선의 벗들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은 조선인민과 함께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있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천만뜻밖에도 서거하신것은 전체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손실로 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선포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으며 걸출한 국가령도자, 탁월한 군사전략가,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시였다.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력한 핵보유국,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위용떨치고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우리는 그이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활동을 적극 벌릴것이다.

본사기자

발전기실의 기초콩크리트치기 완성, 하부설비들의 조립 시작

희천8호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청천강반에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희천정신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희천8호발전소건설장에서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이곳 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평안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난 10월 27일 주요공사대상중의 하나인 발전기실의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를 성과적으로 끝낸데 이어 수력설비조립사업소, 북창발전소건설기계화사업소 전투원들과의 긴밀한 협동작전밑에 31일 발전기실하부설비인 굽은관 및 원추관조립에 진입하는 혁신을 일으키였다.

올해 1월말 온 나라 군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의 착공이 선포되고 본격적인 공사에 진입한지 몇달 안되는 기간에 희천8호발전소건설장에서 벌써 첫 설비조립전투가 진행되게 된것은 실로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이곳 건설자들이 착공식을 한 첫해에 수력발전소건설에서 중요공사대상의 하나인 발전기실기초콩크리트치기공사를 끝내고 매몰설비들의 설치를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발전설비들이 들어오는족족 조립공사를 빠른 속도로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높이 내세운 올해공사과제수행에서 기어이 승리자의 영예떨칠 일념안고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온 평안남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 불굴의 투쟁기풍이 안아온 고귀한 열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평안남도려단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강추위가 지속되고 모든것이 불리한 속에서도 발전소건설목표를 통이 크게 내세우고 공정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속있게 세운데 기초하여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내밀었다.

특히 자기 단위의 공사장조건과 건설공법상특성에 맞게 발전소우안의 가물막이공사를 앞세운데 기초하여 발전기실기초굴착공사에 선차적힘을 넣고 정대와 함마로 언땅을 까내면서 굴착공사를 억척같이 밀고나갔다.

각 대대의 전투원들은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보장조건에 맞게 2선가물막이를 하지 않고도 물의 침습을 막으면서 발전기실기초공사를 더욱 박력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합리적인 가물막이형성방법을 받아들이고 구간별 집중적인 굴착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본격적인 공사계절이 시작되면서 발전기실기초굴착은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려단지휘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5월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희천정신을 창조할데 대하여 주신 말씀에 접하여 비상히 앙양된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굴착설비와 양수설비들을 집중시키고 앞선 발파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공사실적을 최대로 높이도록 된바람을 일으키였다.

평성시대대와 성천군, 개천시대대를 비롯한 각 대대 전투원들의 눈부신 투쟁에 의하여 5월말까지 수천㎥의 토사굴착과제가 전부 수행되였으며 6월에는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 구간의 암반굴착과제가 완수되고 나머지구간의 암반굴착공사도 본격적으로 다그쳐져 두달동안에만도 총량의 80% 이상에 달하는 굴착실적이 기록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련이어 들이닥친 보기 드문 장마피해속에서도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가물막이뚝을 복구하고 수천㎥의 퇴적물처리를 앞세우면서 마감굴착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낌으로써 공사기간 총 1만 1 000여㎥의 토사와 암반굴착을 해제끼였다.

이에 기초하여 려단에서는 10월전투계획을 작전하면서 추위가 닥치기 전에 여러 대상공사와 함께 이미전부터 본격적으로 다그쳐온 중요건설대상인 발전기실기초공사를 하루빨리 다그칠 통이 큰 목표밑에 정리굴착과 콩크리트치기에 총력량을 집중하였다.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콩크리트치기전투에 떨쳐나선 려단 돌격대원들의 충천한 기세와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발전소건설의 관건적고리의 하나인 발전기실기초콩크리트치기는 불과 4일동안에 질적으로 수행되였으며 련이어 하부설비들의 조립에 착수하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였다.

지금 평안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올해의 마지막 본격적인 공사계절에 최대의 공사실적을 내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충정을 안고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발전소구조물들의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에서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류기풍

개성-령통사-박연륜환선도로 형성

개성-령통사-박연륜환선도로가 형성되였다.

력사유적들과 명소들이 많은 박연지구를 더 잘 꾸릴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개성시에서는 령통사-박연도로를 새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설계원들은 험한 산발들을 오르내리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력사유적들과 명소들을 돌아보는데 편리하면서도 자연풍치에 손상을 주지 않게 도로설계를 완성하였다.

도로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낼 일념안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로력조직과 시공지도를 짜고들고 공사를 드세게 추진하였다.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본받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방대한 량의 암반과 토량을 처리하고 로반정리, 도로포장 등을 따라세웠다.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시무역관리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경사가 급하고 석축공사량이 많은 구간의 도로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시직맹위원회, 시청년동맹위원회돌격대원들이 10여개의 다리와 각종 구조물건설을 질적으로 끝냈다.

건설자들은 령통사-박연도로공사를 다그치면서 개성-령통사, 박연-개성도로를 개건하고 곳곳에 주차장과 문화후생시설들을 건설하였다.

훌륭히 변모된 도로를 따라 박연폭포를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력사유적들과 명소들을 돌아보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천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찍음

인민생활향상기지에 어린 위대한 령도의 손길

보통강신발공장을 찾아서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맞고보내신 모든 날과 달들은 오로지 인민의 보다 큰 행복을 위하여 바치신 불면불휴의 헌신적인 활동의 련속이였다.

그 거룩한 자욱마다에 새겨진 인민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를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얼마전 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는 보통강신발공장을 찾았던 우리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우리 인민들에게 맵시있고 질좋은 신발을 더 많이 마련해주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헌신의 로고에 대하여 심장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십니다.》

정갈하게 꾸려진 공장정문으로 들어서는 우리의 눈앞에는 대형모자이크벽화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 안겨왔다.

공장로동계급들과 함께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공장의 한 일군은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였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체62(1973)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확장된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당시)을 찾으시였다.

그날 마중나온 공장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건물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며 공장이 좋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지난날에는 낡은 신발기계들을 들여놓은 몇채의 나지막한 건물들이 공장의 전부였다. 그때의 모습을 찾아볼길 없이 변모된 공장의 여러곳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던 수령님께서 어느 한 직장에 들어서시였을 때 기대옆에는 생산된 신발들이 놓여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신발과 신발형타를 번갈아보시며 줄곧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형타가 더 있어야 하겠다고 심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당시 공장에서 생산되는 신발들은 한두가지 형타밖에 없었으므로 모양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신발모양이 다양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시면서 지금 생산하는 신발이 그전의것에 비하면 대단히 좋아졌으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신발을 신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절절한 말씀을 새겨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우리 수령님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들의 신발문제를 두고 그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던가. …)

그럴수록 그들의 뇌리에는 언제인가 전해들은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어느해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고있는 100여종의 신발견본들을 보아주신적이 있었다.

그때 많은 신발견본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신발은 당사자들에게 직접 신겨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데려오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신발을 손수 신겨보시며 발에 맞는가, 볼이 좁지 않은가, 색갈이 마음에 드는가 등을 알아보시며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좋은 점은 살리고 부족점은 퇴치하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로부터 얼마후 새로 만든 신발견본들이 마련되였을 때에는 렬차집무실에서 자정이 넘도록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그 형태와 색갈에 대하여 깊이 관심하시였고 렬차원처녀를 부르시여 그에게 신발을 신겨보시면서 의견도 들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언제인가는 전문일군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포착하시고 수정안이 적힌 종이쪽지들을 신발 하나하나에 끼워넣어도 주시고 또 어느날에는 손수 휜종이에 자신께서 생각해오시던 신발도안도 친히 그려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인민들에게 보다 맵시있고 편리한 신발을 신기고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였으면 우리 수령님 이렇듯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랴.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신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해 어제는 밤깊도록 신발도안까지 몸소 그려주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현지에서 신발을 잘 만들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는 어버이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소리없이 고여올랐다.

뜻깊은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신발을 생산할데 대한 문제, 신발의 질을 높일데 대한 문제, 공장관리운영을 잘할데 대한 문제 등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이곳 로동계급이 만든 신발들을 보아주시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잊지 못할 그날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볼수록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신발생산을 위하여 그처럼 마음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우리 수령님과 같으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으랴 하는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쳤다.

그런 우리에게 공장일군은 말하였다.

《공장에 어린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공장로동계급이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신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정녕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령도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 공장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고 질좋은 신발들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신발공장으로, 인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보배공장으로 전변될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보통강신발공장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력사는 말그대로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절세의 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온 나날들이였다.

이 과정에 공장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감사를 여러차례나 받았고 26호모범기대공장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우리가 만나본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거둔 성과는 전적으로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안으신 절세위인들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어찌 이 공장에만 깃들어있는 사연이겠는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의 손길이 있기에 내 조국땅 그 어디에나 전변의 자랑스러운 노래가 끝없이 울려퍼지는것 아니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의 자욱이 빛나는 공장을 나서며 우리는 보통강신발공장이 앞으로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길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본사기자 강철남

혁명일화

113건의 형성안

문수물놀이장이 얼마나 희한하고 황홀하게 꾸려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해 마련해주신것이라는것도 모두가 안다.

하지만 물놀이장의 방대한 규모나 다종다양한 시설들을 수자로 계산해보는 사람들은 있을수 있어도 이 희한한 물놀이장의 형성안이 몇건이나 되는지 그 정확한 수자를 아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마식령속도》창조의 거세찬 불바람속에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이 준공을 앞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수물놀이장에 또다시 나오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리상, 인민의 꿈이 또 하나 현실로 꽃펴나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앞에 문수벌이 좁다하게 거대한 물놀이장의 전경이 황홀하게 펼쳐졌다.

구불구불 뻗어간 여러가지 색갈의 물미끄럼대들이며 형형색색의 수조들, 조약대, 인공폭포와 묘향산, 금강산의 기암절벽들을 그대로 옮겨놓은듯싶은 인공바위산, 금시 살아 뛰여다닐것만 같은 동물조각들…

물놀이장의 구내를 걷고 또 걸으시며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일군들의 귀전에는 이 행복의 무아경속에서 터져오르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금시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이런 희한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를 일떠세우시기 위해 우리 원수님께서 기울이신 심혈의 세계 그 얼마였던가.

문득 일군들의 눈앞에 그이께서 얼마전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 선히 떠올랐다.

그날 미림승마구락부를 하루빨리 훌륭히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안겨줄데 대하여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뜻밖의 화제를 꺼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며칠전까지 보아주신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이 109건이였는데 오늘 4건을 또 보아주었으니 113건이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모두가 아연해졌다.

—113건이라니?어느새 벌써?… 113!

그 하나하나의 형성안을 직접 만든 설계가들조차 셈해보지 못한 수자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문수물놀이장에 대한 첫 형성안을 보고올린 때부터 《열, 스물, 서른…》하고 형성안의 번호를 세여가던 설계가들도 매일같이 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작성하다나니 어느새 백을 넘고 열을 더 넘어섰는지 기억하지 못하고있었다.

113건의 물놀이장형성안,

설계로 한생을 보내온 머리흰 전문가들도 하나의 건설대상을 놓고 이처럼 많은 형성안을 만들어보기는 처음이였다. 한밤중에도 이른새벽에도, 휴식일에도 명절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을 지도해주시였다. 설계일군들이 아무리 사색을 모으고 성의를 더했어도 그이께서는 형성안에 만족이 없으시였고 번마다 새로운 착상을 더 넣어주군 하시였다. 때없이 건설장에 찾아오시여 장시간에 걸쳐 돌아보시고는 또 형성안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군 하시였다.

그렇게 지도하여주신 형성안만 해도 113건이였으니 우리 원수님께서 문수물놀이장에 바치신 로고의 세계를 어떻게 다 계산할수 있으랴.

형성안작성은 물놀이장건설의 첫 공정이였을뿐이였다. 그다음은 설계도면작성, 예산타산 그리고 시공… 그 모든것을 우리 원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보아주시였고 하나하나 지도해주시였다. 타일 한장에까지 원수님의 로고가 깃들어있다.

삼복의 찌물쿠는 무더위속에서도, 인민들이 단잠에 든 때에도 건설장을 찾고찾으시였고 때로는 건설장에서 동터오는 새벽을 맞기도 하시였다.

사람들은 신문, 방송을 통하여 알려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문수물놀이장건설장 현지지도보도소식이 5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을 놓고도, 9월에는 며칠사이에 두차례나 찾아오신 소식을 두고도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하지만 인민들도 설계가들도 다 헤아릴수 없는 문수물놀이장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과 로고의 세계를 무슨 수자로, 무슨 말로 력사에 전할수 있을것인가.

격정에 휩싸인 일군들모두가 묵묵히 서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전히 환히 웃으시며 물놀이장구내길을 또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하시였다. 그이의 마음속에는 어버이장군님의 생전의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된 기쁨이 흘러넘치고있었다. 온 세상을 굽어보며 인민이 마음껏 터치게 될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마음속으로 웨쳤다.

(인민들이여, 선군장정의 오성산 152굽이를 잊지 않듯이 문수물놀이장의 113건의 형성안을 부디 잊지 마시라!)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성대히 경축한 후인 10월 15일, 문수물놀이장에서는 성대한 준공식이 있었다. 사람들은 문수물놀이장건설을 위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꼭 나오실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준공테프를 끊은것은 인민이였다.

본사기자 백영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뽀르뚜갈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11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안또니우 뀐떼이루 노브레 주조 뽀르뚜갈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근로자들이 리용해야 빛이 난다

언제인가 함경남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흥관에 새로 꾸려놓은 연회장을 돌아보시던 때의 일이다.

연회장의 내부를 만족한 시선으로 둘러보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연회장을 어떻게 리용하고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연회장을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리용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신중한 안색을 지으시였다.

일군들이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훌륭한 연회장을 꾸려놓고 중요행사때만 리용하면 되겠는가고, 연회장을 함흥시민들이 늘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사회에서는 인민들이 응당 제일 좋은 방을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근로자들이 널리 리용하게 하는것이 빛이 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형언할수 없는 감격이 물결쳤다.

근로자들이 널리 리용하게 해야 빛이 난다!

이 한마디의 말씀속에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은정이 얼마나 뜨겁게 담겨져있는것인가.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군들은 모든 일을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절대복종시키며 그 길에서 자그마한 탈선도 몰라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긴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깊이 새겨가는 참관자들
—전승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혁명일화를 통한 위대성교양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혁명일화를 통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들끓는 현장들에 나가 당원들과 탄부들속에 혁명일화를 통한 해설선전을 실감있게 벌려 그들이 어머님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석탄증산으로 들끓는 작업현장에 나간 초급당일군은 작업의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혁명일화를 통한 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새 조국건설시기의 어느날 평양학원을 찾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학생들의 사격훈련을 친히 지도하여주시면서 사격술을 높이는것은 단순한 군사적의무로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을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해야 할 숭고한 사명으로 간직해야 하며 결국 사격술도 수령님의 안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수령결사옹위의 고귀한 정신을 심어주시였다는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탄부들은 오늘의 석탄증산투쟁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지키는 수령결사옹위전이라고 하면서 막장마다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연전행

산과 바다에서 꽃펴난 인민의 행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주체43(1954)년 7월 어느날이였다.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저녁 중앙과 도의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여 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협의회를 하게 된 목적을 일군들에게 알려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함경북도에는 령세농민이 70%인데 이 문제를 이번에 꼭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전후복구건설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령세농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협의회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선 산간지대의 령세농민들은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생활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축산업에서는 알곡을 먹이지 않고도 칠수 있는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기르는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야 알곡이 귀한 이 지방에서 많은 고기를 얻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농업상에게 소도 많이 기르게 하고 양과 염소도 농촌에 보내주어 기르게 하며 우량품종의 토끼종자를 보내줄데 대해서와 호수가 있는 곳에서 오리도 많이 기를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귀중한 가르치심에는 땅이 척박하고 랭해가 심하여 알곡소출에 크게 기대를 걸수 없는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빨리 추켜세울수 있게 하는 방도가 환히 밝혀져있었다.

이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바다가지역 농민들의 생활문제에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바다가에서 사는 령세농민들은 농사를 위주로 할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데 중점을 두도록 수산협동조합을 많이 내와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작은 배를 많이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을 위하여 일해온다고 하였지만 실지에 있어서 척박한 땅만 뚜지려고 했지 옆에 끼고있는 바다를 리용하여 이 지역 령세농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울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감동과 탄복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풀먹는집짐승도 기르고 오리도 기르며 세소어업도 하면 잘살수 있다, 이렇게 하는것을 반농반목축업, 반농반어업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반농반목축업, 반농반어업, 새기면 새길수록 깊은 뜻이 안겨오는 뜻깊은 말씀이였다.

숭엄한 격정에 휩싸인 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만 한다면 얼마든지 령세농민들의 생활을 풀수 있다는 신심과 한시바삐 사업을 전개해나갈 왕성한 의욕이 넘쳐흘렀다.

일군들의 심중을 헤아려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령세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자면 반농반목축업, 반농반어업으로 나가야 한다, 산에 있는 사람은 산을 뜯어먹고 바다가에 있는 사람은 바다를 뜯어먹어야 한다, 그래야 잘살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 함경북도 령세농민문제가 해결될수 있다, 다른 도에도 령세농민들이 있지만 함경북도가 제일 많다, 여기 령세농민들의 생활만 해결하면 우리 나라 령세농민문제는 다 해결되는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개 도의 령세농민들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며 현지지도의 길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깊은 밤까지 일군들과 협의회를 진행하시였다.

그후 인민의 행복을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리여 전후에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였던 령세농민문제는 짧은 기간에 풀리였고 산간마을은 산을 리용하여, 바다가마을은 바다를 리용하여 잘살게 되였다.

본사기자 림정호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인민군대강화는 선군혁명의 첫째가는 중대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군사를 중시하고 군건설에 선차적힘을 넣어 군대를 당과 수령의 군대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을 가장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있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둥이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이다. 선군혁명의 첫째가는 중대사는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걸으시면서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고 선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시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는 곧 선군의 력사이며 그 갈피마다에는 인민군대강화를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이 찬연히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에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을 선군혁명의 첫째가는 중대사로 보신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수령의 군대, 필승불패의 혁명강군으로 키워 우리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였으며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준엄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시였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면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이 왜 선군혁명의 첫째가는 중대사로 되는가.

—우선 인민군대를 핵심, 주력으로 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선군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기때문이다.

혁명의 수뇌부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운명이며 일심단결의 근본핵이다.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 선군혁명위업의 백전백승의 근본담보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강군으로 키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항일혁명투사들의 고결한 수령옹위정신이 전군에 차넘치도록 하시고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시는 시기에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안변청년발전소를 건설한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도 바로 수령결사옹위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전군이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용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선군혁명의 길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일심단결의 본보기대오로 되고있다.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에 대한 인민군대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다함없는 흠모심이 총진군대오의 충정의 일편단심으로 굽이치고있으며 우리 군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전체 인민의 심장에 그대로 흘러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나아가는 원수님의 참된 전우, 동지들의 대부대가 우리 인민군대이며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이룬 혼연일체의 성새가 바로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인민군대가 일심단결의 본보기대오로 위용떨치고있기에 수령, 당, 군대, 인민의 통일체, 선군혁명의 주체의 위력은 무궁무진하다.

—그것은 또한 인민군대를 강화하여야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할수 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이며 반제군사전선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 혁명의 기본전선이다.

혁명의 총대, 인민군대가 강해야 피흘려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할수 있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군대강화를 최대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뿐아니라 군사기술적, 전략전술적위력을 천백배로 높여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4(19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를 찾으신 때로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시찰하신 무력부문의 단위수만 하여도 2490여개에 이르고있다. 선군의 산악 오성산과 철령을 비롯한 험산준령을 넘고넘으시며 인민군군인들에게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 일당백의 용맹과 백승의 지략을 안겨주시고 백두의 혼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은 선군혁명실록에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밑에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만능의 주체전법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다 갖춘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열병식을 통하여 우리의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이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되였고 노도와 같이 전진하는 우리 혁명무력의 멸적의 기상앞에 원쑤들은 전률하였다. 위대한 백두령장을 높이 모신 인민군대가 반제군사전선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서있기에 선군으로 존엄높은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영원히 금성철벽이다.

—다음으로 인민군대를 강화하여야 이 땅우에 강성부흥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고조진군을 주도해나가는 핵심부대는 인민군대이다. 조국의 보위자인 동시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이며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인 인민군대의 위력을 대신할 사회적집단은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인민군대가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창조의 기수가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단숨에의 기상과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애국의 의지는 불면불휴의 초강도강행군으로 혁명적군인정신이 차넘치는 대건설전투장들을 찾으시여 인민군군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지적사랑과 믿음에 원천을 두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며 원수님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웅대한 구상과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고있다. 인민의 문명한 생활과 복리증진을 위한 창조물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생산기지들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수준으로 일떠세우며 우리 인민군대가 앞장에서 내달리고있기에 이 땅우에 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대비약, 대혁신의 열풍이 휘몰아치고있는것이다.

인민군대강화는 선군혁명의 첫째가는 중대사이다.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선군혁명대오의 장엄한 모습, 최첨단을 돌파하며 사회주의문명강국에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길에 최후승리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장은혜

일군들이 헌신하는것만큼 인민들의 행복이 커진다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순천화력발전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사람들은 흔히 무슨 일에서나 손해를 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순천화력발전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견해는 다르다.

종업원들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보는 일도 해야 한다는것이 종업원들에 대한 이곳 일군들의 복무관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의 리익, 이것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야 할 사명을 지닌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사고와 실천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곳 발전소당일군들의 사업기풍을 통해 당일군들이 어머니구실을 한다는것이 어떤것인가를 보기로 하자.

몇해전 로동자합숙을 건설할 때였다. 발전소의 한 기술일군이 완성한 합숙설계도면을 검토하던 초급당비서 리청복동무는 합숙이 예견했던것보다 협소하게 설계된것을 알게 되였다. 어떻게 된 일인가 묻는 초급당비서에게 설계일군은 발전소의 형편을 생각해서 그랬다고 하였다.

리해가 되였다. 사실 발전소에서는 종업원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벌려놓은 공사대상이 한두개가 아니였다. 해마다 살림집을 짓고있는 조건에서 합숙생이 줄어들것은 뻔한데 스무명도 되나마나한 그들을 위해 덩지가 큰 합숙을 건설한다는것이 수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였던것이다.

그때 초급당비서가 그에게 한 말은 얼마나 준절하였던가.

－물론 동무의 심정은 리해된다. 하지만 타산부터 앞세운다면 어려운 조건에서 종업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 그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줄수 있다면 발전소의 모든것을 통채로 바쳐서라도 해야 한다. 시작했던김에 합숙과 잇달아 정양소도 함께 꾸려준다면 그들이 좋아할것이다.

그때 발전소 설계실장이 받은 충격은 컸다고 한다.

며칠후 초급당일군은 기술일군들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대한 참관을 조직하였다. 후방사업은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그곳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발전소일군들을 《잠》에서 깨워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후에도 초급당일군은 평성시와 평양시에 출장을 가서도 합숙을 잘 꾸려놓은 단위라면 우정시간을 내여 찾아갔다. 그때마다 그가 가지고다니는 수첩에는 합숙생들과 정양생들을 위해 해야 할 일감들이 적혀지군 하였다.

이렇게 되여 로동자합숙과 정양소가 3층으로 훌륭히 설계되였고 1년후에는 세면장, 위생실 등 모든 조건이 합숙생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지고 가구들도 갖추어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멋쟁이합숙이 일떠섰다. 정양소에는 문화오락기재들도 충분히 갖추어지고 큼직한 양어못까지 생겨나 휴양소를 방불케 하였다. 이 모든것은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높여 한kw의 전기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떨쳐나선 로동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킨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무슨 일을 하나 조직하고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종업원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하자. 이것은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생동한 실례가 있다.

화력원건설이 거의 끝나갈무렵이였다.

일군들과 함께 수영장을 돌아보던 초급당일군은 수영장에 조약대를 만들어주는것이 어떤가고 하였다. 모두가 의아해하였다.

일군들의 눈빛은 이렇게 묻고 있었다.

－전문수영경기장도 아닌데 꼭 조약대를 놓아주어야 하는가.

－자재와 로력은 또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일군들의 속생각을 꿰들어본 초급당일군은 말하였다.

《수영장에 들어서면 조약대에서 떨어지고싶어하는것이 사람들의 심리라고 봅니다. 자재와 로력이 좀더 들더라도 조약대를 만들어줍시다. 나나 동무들이나 종업원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따르자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여 수영장에 조약대가 생겨났다.

수영장의 물보장문제를 놓고 론의가 벌어졌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은 자재와 로력이 긴장한 조건에서 공업용수를 가지고 수영장의 물을 보장하는것이 실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초급당일군은 견해를 달리하였다. 발전소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물파기공사를 하여 수질이 좋은 물로 수영장을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것이 그의 확고한 립장이였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구내를 밟으며 샘줄기를 찾아낸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공사장에서 살다싶이하면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낮에는 돌격대원들과 어울려 물속에 들어가 곡괭이를 휘두르고 밤에는 생산현장에 들어가 야간교대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벌려나갔다. 그러느라니 손에 박힌 장알은 풀릴 사이가 없었고 두눈은 충혈되여있었다.

종업원들에게 더 좋은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고생을 사서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일판을 벌려나가는 일군들의 불같은 모습에 고무된 돌격대원들은 더욱 분발해나섰다. 6개월이상은 걸린다고 하던 우물파기공사를 4개월동안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되여 수영장에 수질이 좋은 물이 흘러들게 되였다.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종업원들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인민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에 의하여 습식한증탕과 건식한증탕이 있는 남, 녀목욕실, 수영장, 사진실, 식당, 탁구장을 갖춘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종합적인 편의봉사기지가 일떠섰다.

화력원옆에는 배구장과 정구장이 생겨났다.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립장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이악하게 실천하는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인민적인 사업기풍은 280여세대의 살림집에도 메기생산기지에도 어려있다.

이제 이곳 일군들이 종업원들을 위해 또 어떤 좋은 일을 해놓겠는지 앞으로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손영희

《우리》라고 불리우는 당일군들

류다른 일지에 비낀 모습

락랑구역당위원회 청사에는 부피두터운 일지가 있다. 여기에는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이 주민들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풀어준 내용이 기록되여있다.

이 일지에는 이런 사연이 있다.

최봉준동무가 구역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되여온 다음날 저녁이였다. 벌써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고 여러 가정들에도 들어가본 책임비서였다.

책임일군은 구역당일군들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 스스로 이 물음앞에 대답해봅시다. …》

퇴근길에 책임일군은 한 과학자의 집을 찾았다. 가정생활형편을 알아보고 다음날에는 전화도 놓아주게 하고 집안도 새 집처럼 꾸려주도록 하였다. 다른 당일군들도 그날 저녁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정을 찾았다. 그 다음날에도 일군들의 가정방문은 계속되였다.

이렇게 당일군들은 자주 구역주민들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군 한다. 이와 같은 사업정형들이 매일매일 기록되는 일지였다.

바로 이 류다른 일지에 비낀 당일군들의 모습은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영예군인이 부른 노래

양덕군 읍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송월성동무에게는 사랑하는 노래가 있다.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이다.

새로 지은 그의 집에서 자주 울리는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사람들은 한 당일군을 생각하군 한다.

몇해전 6월 어느날이였다.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알아보던 양덕군당위원회 비서 강호남동무는 자책이 컸다. 송월성동무가 생활상애로를 느끼고있다는것이였다.

(한 영예군인의 생활도 잘 돌봐주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당일군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지체없이 그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그가 집에 없었다. 병치료를 위해 다른 지방으로 갔던것이다.

얼마후 송월성동무가 돌아왔다. 이날 그는 달라진 집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거기에 바쳐진 강호남동무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도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그때부터 송월성동무의 집으로는 군당일군들이 자주 찾아왔다. 그들은 송동무의 가정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주었으며 그의 딸들의 희망에 따라 맏딸은 리발사로, 둘째딸은 음악소조에서 자기의 재능을 꽃피울수 있게 해주었다. 그후에는 살림집을 새로 지어주고 부엌세간을 비롯한 가정용품도 일식으로 갖추어주었다.

새집들이를 하는 날 영예군인도 울고 그의 안해도 딸들도 울었다. 어머니당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무더기비 내리는 밤에

지난 7월 16일 저녁 강을 따라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이 있었다. 고풍군 방성리당비서 박병팔동무였다.

제7작업반마을앞에 있는 동뚝이 걱정되여서였다.

사실 리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을 발동하여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었다. 그러나 리당일군은 마음을 놓을수가 없어 밤길에 나섰던것이다.

저녁부터 내리는 비는 새벽 한시까지 그칠줄 모르고 내렸다. 사품치며 흘러내리는 강물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었다. 예상밖이였다.

리당일군은 가지고온 마대들에 모래를 담아 동뚝을 보강하기 시작하였다. 얼마후 이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리당일군들과 관리일군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이렇게 되여 제7작업반마을에 있는 20여동의 살림집이 구원되게 되였다.

다음날 높아진 동뚝을 보며 농장원들은 말하였다.

《늘 농장원들을 위해 마음을 쓰는 우리 리당비서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본사기자 장철범

구멍탄생산기지가 생겨난 사연

온천군 한현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온천군 한현농장에 석탄을 실은 차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빨리도 전해졌다.

사람들은 석탄을 가득 실은 차들을 빙 둘러싸고 저저마다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석탄을 실어온 일군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어리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석탄을 마련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닌 농장의 일군들이였던것이다. 인민을 위해 또 한가지 좋은 일을 하였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일군들의 가슴을 부풀게 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누구의 얼굴에나 기쁨이 넘쳐나고있을 때 초급당비서 리경섭동무의 얼굴만은 왜서인지 밝지 못했다.

언제인가 제4작업반에 나갔을 때 일이 바빠 구멍탄을 찍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던 한 작업반원의 이야기가 떠올라서였다.

언제나 군중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는 리경섭동무였기에 남들이 석탄을 받게 되였다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리속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설계되고있었다. 구멍탄까지 찍어서 집집마다 나누어주자는것이였다.

그러나 일군들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았다. 구멍탄을 찍어서 공급하자는 말을 듣고 일부 일군들이 의견을 달리하였던것이다.

－어느 집에서나 땔감걱정은 하지 않게 되였다고 기뻐한다. 그만큼 농장사람들에게 석탄을 실어다준것만도 대단하다고 할수 있다.

있을수 있는 의견이였다.

하지만 초급당일군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그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물론 벌방에 위치한 우리 농장에서 매 세대들에 석탄을 공급하는것만으로도 큰일을 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세간낸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보라. 아마도 어머니라면 세간낸 자식들에게 탄을 가져다주는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것이다. 구멍탄까지 찍어서 쓸수 있게 해주고서야 마음놓을것이다. 인민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하는것이 우리 일군들이다.

초급당일군의 말은 석탄을 해결해주는것으로 할바를 다했다고 만족해하던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자식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어머니처럼 살 자각을 안고 일군들은 분발해나섰다.

그들은 또다시 먼길을 떠났다.

초급당일군은 구멍탄찍는기계를 만들기 위하여, 관리일군은 발열량이 높은 구멍탄생산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얼마후 농장에는 구멍탄생산기지가 생겨나게 되였으며 여기서 생산한 구멍탄이 집집마다 공급되게 되였다. 그러니 농장사람들의 심정을 더 말해 무엇하랴.

구멍탄생산기지 하나를 통해서도 농업근로자들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당의 어머니사랑을 다시금 페부로 절감하였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영농전투에서는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났다.

《우리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초급당일군들의 일본새에서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는 고생도 달게 여기며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친어머니의 모습을 보군 합니다.》

이것은 이곳 농장사람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오철권

‖단 상‖

밤 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은 당원들과 대중의 참다운 어머니가 되여야 합니다.》

얼마전 취재길에서 알게 된 한 당일군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회창군 구룡리당비서 김철동무이다. 그날 그는 50리 밤길을 달려오느라 땀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우리앞에 나타났었다.

《부비서동무, 향미의 상급학교등교문제가 풀렸소!》

부비서의 손목을 덥석 잡고 기뻐하는 리당비서의 모습은 만시름을 놓은 어머니의 모습그대로였다.

밤길을 걸은 사연이 뜨거웠다.

제7작업반 김동무의 딸이 올해 봄 도소재지에 있는 대학에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되였었다. 그런데 그후의 일이 문제였다. 당사자가 가정사정때문에 집을 떠나지 못하겠다고 한다는것이였다. 그후 그의 집과 읍으로 향한 밤길에는 리당비서의 발자국이 자주 찍히였다. 김동무의 가정살림을 도와주려고 걸은 길, 해당한 수속을 하느라 걸은 길…

당사자와 부모들, 해당 부문 일군들을 만나고 상급학교에도 직접 찾아간 그 허다한 밤길이 오늘의 기쁜 결과를 안아왔던것이다.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는 나에게 리당비서는 말했다.

《우리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이 이상 큰 문제가 어디에 있고 50리가 무슨 먼길이겠습니까.》

50리 밤길을 멀게 생각하지 않는 당일군.

생각이 깊어졌다. 나이도 적지 않은 리당비서에게 50리 밤길은 결코 헐한 길이 아니였을것이다. 하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인적드문 수십리 밤길을 그리도 가깝게, 그리도 기쁘게 걷도록 하였는가.

힘든 길을 걸으면서도 힘든줄 모르는것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다.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어머니당일군이 아니고서는 그런 밤길에 나설수 없다. 그런 일군에게는 500리도 지척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못한 일군에게는 5리길도 천리길처럼 여겨질것이다.

그날 밤 나는 또 한명의 어머니당일군의 참모습을 보았다.

피눈물속에 잠겨있던 이 나라의 천만자식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일으켜세워주시고 가시는 곳마다에 인민사랑의 전설을 수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삶과 투쟁의 거울로 삼고 인민을 위해 헌신의 길을 걷고걷는 우리의 당일군들은 얼마나 많으랴.

하기에 나에게는 한 리당일군이 걸은 그날의 밤길이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그런 밤길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과 천만대중을 뜻과 정으로 이어주며 우리 당일군들이 한생 걸어야 할 헌신의 길,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길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향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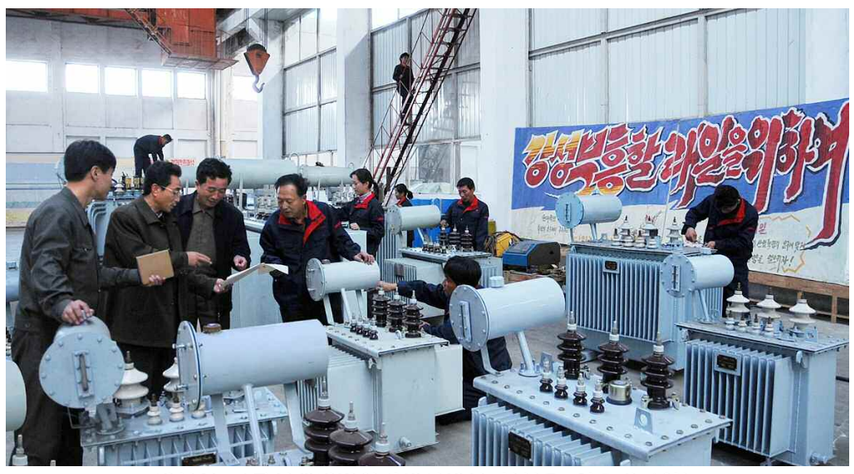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개천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탄부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올해 가을에 들어서면서 초급당위원회는 버섯공장과 태양열남새온실 2동을 건설할 목표를 내걸고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일판을 벌려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리봉술, 김성호, 박영순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건설현장에 몸을 푹 잠그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실천적모범으로 건설자들을 혁신에로 이끌었다. 그리하여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버섯공장과 600㎡에 달하는 태양열남새온실 2동이 번듯하게 건설되게 되였다. 또한 초급당위원회는 후방부문의 일군들이 염소,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기르기도 잘하도록 떠밀어주어 탄부들의 식탁을 푸짐히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전순희



새형의 주틀식랭각변압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대안전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생산장성의 예비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상농광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생산장성의 가장 큰 예비는 기술혁신에 있습니다.》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상농광산에서 광물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광산에서는 최근 2~3년동안에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생산공정들을 더욱 완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생산능률을 종전에 비하여 훨씬 끌어올리고있다. 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 광부들은 올해에만 해도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합리화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광물생산량을 1.2배이상으로 끌어올리였으며 매달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광산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기술발전목표를 단계별로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사이에 갱밖에 있던 압축기장을 막장안에 전개하고 새 형의 능력이 큰 압축기들을 새로 받아들임으로써 압축공기보장능력을 종전보다 1.5배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6.6갱과 건설갱의 채준소대들에서는 압축기장을 갱안에 꾸리고 새 형의 능력이 큰 압축기들이 설치된데 맞게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어 종전보다 계획을 1.3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공업시험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마광계통에 대한 콤퓨터조종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종전보다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마광기처리능력을 121%로 끌어올릴수 있게 하였다. 광산에서는 2공무직장에 중주파유도로를 새로 설치하여 생산능률을 2배로 끌어올림으로써 뽈과 안붙임을 비롯한 마광기에 쓰이는 여러가지 부분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2공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소둔로를 자체로 제작설치하여 광산기계의 부속품생산량을 늘이고 그 질을 보장하는데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갱내압축기장과 파쇄장에 먼지잡이장치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 줄기차게 밀고나가고있다. 그들은 련관단위 과학자, 기술자들과 긴밀한 련계밑에 공정설계와 기술설계를 앞세우고 설비, 장치물제작과 관로망설치작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직심스럽게 내밀어 덕을 보니 얼마나 좋은가

버섯기르기를 잘하고있는 강서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서구역에서는 올해 120여t의 버섯을 생산하였다.

얼마전에는 구역버섯공장개건전투를 힘있게 벌려 해마다 100t이상의 버섯을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결국 구역적으로 다음해부터 200t이상의 버섯을 생산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문제는 일군들이 어떤 관점에서 버섯기르기문제를 대하며 끝장을 볼 때까지 직심스럽게 내미는가 하는데 있다.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

몇해전 12월 구역당책임비서로 일하게 된 강동혁동무는 첫 사업으로 버섯, 풀먹는집짐승기르기와 온실남새생산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정형부터 료해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청산협동농장을 돌아보던 그는 제10작업반의 온실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크기가 150여㎡밖에 안되는 온실에서 해마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2t이상의 버섯을 수확한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하였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더 흥미있었다.

버섯기르는데는 크게 품이 들지 않으며 겨울철에 하기때문에 농사일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또 가을철에 강냉이속이 많이 나와 기질문제도 쉽게 해결할수 있어 좋았다. 이렇게 생산된 버섯은 작업반원들의 식생활과 경영관리에 리용되고있었다.

그날 저녁 책임일군은 다시금 버섯기르기와 관련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였다.

버섯기르기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중요한 정치적문제이다. 책임일군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을 깊이 연구하여 세웠다. 우선 학습열풍을 일으켰다. 일군들속에 버섯생산과 관련한 당정책을 깊이 침투시키고 버섯기르기의 생활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청산협동농장에 대한 자료도 구체적으로 통보해주었다. 버섯재배의 세계적추세도 알려주었다.

또한 버섯기르기를 당적으로 강하게 내밀었다. 앞으로 2~3년사이에 강서구역이 버섯기르기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데 대한 문제를 당결정으로 채택하고 구역당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내려가 이 사업을 실속있게 내밀도록 하였다. 책임일군자신이 버섯공장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것과 함께 일군들이 해당 단위들에서 버섯기르기에 응당한 힘을 넣도록 월, 분기별로 장악총화사업을 짜고들게 하였다.

특히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에 대한 관점문제, 인민에 대한 관점문제로 보고 버섯기르기를 내밀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총화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정책관철의 열쇠를 찾아나가는 밝은 눈을 가지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전투적인 작전과 지휘는 훌륭한 결실을 안아왔다.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120여t의 버섯생산량도 그렇지만 더 자랑할만 한것이 있다.

그것은 구역안의 많은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지어 가정들에서까지 너도나도 버섯을 길러 그 덕을 보면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감동하고있는것이다.

오늘 구역에는 160여동에 연 2만 3 540㎡의 버섯재배장이 있다. 여기에 훌륭히 개건된 버섯공장과 구역안의 많은 가정들의 버섯재배실까지 합치면 그 면적은 참으로 크다.

어떻게 되여 버섯기르기가 이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였는가.

일군들이 무엇보다 잘한것은 버섯기르기를 잘할데 대한 정치사업을 말로만 하지 않은것이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본보기단위들을 정하고 그를 통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발동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본보기로는 청산협동농장 제9, 10작업반, 청년작업반 분조장 황정옥, 남새제2작업반 농장원 고영희가정을 내세웠다.

보여주기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150㎡되는 버섯재배장에서 해마다 2t이상의 버섯을 생산하여 농장원들에게 공급하고 경영관리에도 적극 리용하며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 작업반들의 자랑은 참가자들에게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더우기 집뜨락의 자그마한 박막온실에서 해마다 근 1t의 버섯을 수확하여 생활을 남부럽지 않게 꾸리면서도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잘하고있는 청년작업반 분조장 황정옥가정의 경험은 큰 충격을 주었다.

확실히 백마디의 설명보다 한번의 보여주기가 위력하였다.

버섯기르기에 대한 기관, 기업소들의 당, 행정책임일군들과 주민들의 의욕과 열의는 급격히 높아졌다.

구역에서는 이에 맞게 경험발표회를 자주 조직하였다. 버섯기르기를 10년이상 근기있게 내밀어오는 과정에 터득한 선구자들의 경험은 큰 실효를 나타내였다.

그렇게 첫걸음을 떼여 점차 생산성과가 확대됨에 따라 버섯기르기는 대중자신의 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온실을 건설할 부지가 전혀 없는 구역위생방역소에서 2층건물옥상에 100㎡의 온실을 짓고 해마다 1t이상의 버섯을 생산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어디서나, 누구나 버섯기르기에 열성이였다.

그 나날 구역의 일군들은 그저 버섯을 재배하라고 호소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보았다.

버섯기르기도 과학이다

버섯기르기도 역시 과학이다. 균을 다루는 섬세한 기술공정이 버섯기르기이다.

이를 중시한 구역일군들은 기관, 기업소버섯재배공들의 기술학습을 자주 조직하였다. 기술학습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기관 연구사들의 강의도 받고 경험자들의 토론도 진행하였다. 버섯기르기에서 모범적인 단위의 재배장에서도 진행하고 제일 뒤떨어진 단위의 온실에서도 진행하였다. 전문기관 연구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배워주고 배우는 과정에 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버섯기르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였다.

버섯공장개건전투를 벌릴 때에도 구역에서 제일 중시한것이 바로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는 문제였다.

구역당위원회 부장 류성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수십리 밤길을 걸으면서 버섯공장개건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들을 다 해결해주면서도 현대적인 설비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전열식고압증기멸균가마와 콤퓨터를 비롯하여 버섯생산을 과학적으로 할수 있는 설비들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전열식고압증기멸균가마를 리용하니 종전보다 4배의 기질멸균능률이 나 버섯생산량을 부쩍 늘일수 있어 좋다고 이곳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구역버섯공장에서 기능공 김영일동무가 쓸모없이 버림받던 목화대를 버섯기질로 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목화대 1t당 500~600㎏이상의 버섯을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도 과학기술을 앞세운 덕이다. 구역에 있는 많은 면적의 목화밭도 다 버섯기질생산에 이바지된다고 볼 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구역의 경험은 어디서나 버섯기르기를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과학기술을 앞세워나갈 때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념원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버섯바다로 꽉 뒤덮일 구역의 가까운 앞날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본사기자 장은영

어버이사랑과 은정속에 누려가는 크나큰 혜택

개원 1돐을 맞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다심한 은정속에 태여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가 개원 1돐을 맞이하고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이곳 의료일군들과 함께 온 나라 인민들은 지난 한해동안 우리 녀성들에게 베풀어진 당의 사랑이 얼마나 크나큰것인가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학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의료봉사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있는 현실은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을 더욱 높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가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속에 자기의 첫걸음을 내짚은것은 지난해 11월 6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평양산원에 현대적인 유선종양연구소를 잘 꾸려줄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이날을 맞으며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얼마전 이곳을 찾았던 우리에게 소장 리청원동무는 개원 1돐이 다가올수록 녀성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헌신의 로고가 다시금 되새겨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으로 가슴을 적시게 된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녀성들에게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 과학연구기지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는 실로 헤아릴수 없었다.

찌는듯 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건설장을 찾으시여 몸소 건설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뜻깊은 말씀을 남기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설과 운영준비와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지도록 구체적인 대책들도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서는것과 함께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설비들도 갖추어주시여 치료예방사업을 세계적수준에서 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정녕 첨단급의 값비싼 의료설비들은 물론 입원실에 놓여진 하나하나의 텔레비죤과 랭동기, 벽면에 붙인 벽지며 계단의 란간, 환자복과 실내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녀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시는 그이의 세심한 손길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하기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아온 환자들은 하나와 같이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사랑의 집이라고, 여기에 입원만 해도 병이 다 나은것 같다며 이런 훌륭한 의료봉사기지에서 치료를 받게 된것은 우리 인민들만이 누릴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마다 감탄을 터치였다.

흔히 암성질병으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있어서 밤은 고달픈 시각이였다. 아픔도 더해지고 여러가지 생각이 많아 잠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여기 유선종양연구소에 입원한 환자들은 따뜻한 호실에서 침대에 편안히 누워 텔레비죤을 보면서 유쾌한 밤을 보내고있다.

즐겁게 웃음을 지으며 입원생활을 보내는 그들을 마주 대할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대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다시금 느끼며 이곳 의료일군들은 당에서 천만금을 들여 마련해준 유선종양연구소를 잘 관리운영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으로 가슴들을 불태웠다.

개원후 지난 1년간 전국의 녀성들을 대상으로 검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수술치료와 물리치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의료봉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였다. 또한 의학과학연구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여 유선질병진단과 치료수준을 새로운 높이에로 올려세울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였다.

보건성의 지도밑에 매해 3월과 9월에 전국의 녀성들을 위한 유선검진체계를 세운 이들은 아래단위 보건일군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조직하고 옳은 기술방법적지도를 주어 녀성들에 대한 검진조직과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30대와 40대의 녀성들은 1년에 두번정도, 50대 녀성들은 1년에 한번정도 정상적으로 검진을 받는 체계를 세웠다.

결과 전국의 녀성들을 제때에 조기진단하여 치료를 할수 있는 정연한 체계가 세워지고 의료일군들이 작성하여 내려보낸 검진조사표가 녀성들에게 차례지게 되였다.

본인이 미처 느낄수 없었던 병까지도 다 찾아내여 치료해주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인민적시책속에 유선질병을 가지고있던 녀성들이 제때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감동적인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그들속에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백두산기슭의 외진 산골마을로부터 시작하여 오성산, 월내도 등 최전연지구에서 살고있는 녀성들도 있었다. 또한 우리 녀성들뿐아니라 다른 나라의 녀성들도 있었다.

녀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베풀어지는 어머니당의 은덕이 너무 고마와 함흥시 홍남구역 서호1동에서 살고있는 최서향녀성은 온 나라 녀성들의 마음을 담아 삼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다.

당의 은정속에 마침내 두번다시 새 생명을 받아안게 된 감격에 목메여 터치는 그의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고 우리의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건강관리를 잘하십시오

김 정 은

2013. 2. 13》이라는 사랑의 친필도 안겨주시였다.

녀성들에게 베풀어지는 당의 사랑이 그대로 가닿도록 의료일군들은 현장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검진용뻐스에 몸을 싣고 과장 김춘란동무를 비롯하여 검진과의 의사, 간호원들은 여러 단위들을 찾아다니면서 위생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리고 이동검진 및 치료대책도 면밀하게 세워주었다.

의사, 간호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위생선전내용을 들으며 유선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상식을 알고 검진까지 받고난 근로자들은 녀성들을 위한 사랑의 집이 세워진것만도 과분한 일인데 친절한 의료일군들을 보내여 이동봉사까지 받도록 해주니 이 고마움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마다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다.

참으로 개원후 1년간 유선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사업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은것은 의료봉사의 모든 계기가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로 이어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았던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당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이렇듯 훌륭한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 과학연구기지가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듣고나서 누구나 감동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세계적으로 좋다는 병원도 가보고 입원도 해보았지만 이 병원은 그 어느곳보다 훌륭하다. 이 병원은 인민을 가장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최상급병원이라고 말할수 있다. …

개원 1돐을 맞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의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이 우리 녀성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더 훌륭히 수행해나갈 불같은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김 옥 별

김병률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최고재판소 고문 김병률동지는 악성림파종으로 주체102(2013)년 11월 4일 83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김병률동지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우리 당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혁명가의 가정에서 태여나 혁명적영향을 받으며 자라난 김병률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유능한 일군으로 성장하여 우리 당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김병률동지는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손에 무기를 잡고 최고사령부의 안전과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웠다.

김병률동지는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던 시기 당중앙위원회와 지방당, 인민정권기관의 중요한 초소들에서 당의 과학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김병률동지는 1990년대 초부터 무력기관과 사법기관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하면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부터 당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나라의 법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쳤다.

동지는 다년간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관성원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업하였다.

동지는 조국과 혁명앞에 세운 공로로 하여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많은 국가표창을 받았다.

김병률동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김병률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2(2013)년 11월 4일

나무모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벽성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가을철나무모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나가고있다.

산림경영소에서는 지난 기간 많은 나무모를 길러내여 산림자원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당면한 가을철나무모발관리를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산림경영소아래 양묘장들과 산리용반의 종업원들은 나무모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튼튼히 길러 산과 들에 심기 위한 준비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그 앞장에 군모체양묘장, 통산양묘장들의 종업원들이 서있다.

이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종별나무모비배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맞게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군을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여러 양묘장들에 나가 기술지도를 짜고들고있다.

산림경영소의 종업원들은 종자채취, 넓은잎나무들의 겨울나이준비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 승 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5일 이브라힘 이브라힘 이스마일 국제관계 및 협조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록에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께서는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다고 썼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일본체육대학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5일 일본체육대학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손님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 *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5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으며 그들을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일우호친선협회에서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일행과 일본체육대학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조일우호친선협회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일행과 일본체육대학대표단을 위하여 5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인 이노끼 간지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과 일행, 마쯔나미 겡시로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체육대학대표단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일우호친선협회 고문인 김영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성남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김병식 체육성 부상, 신동규 조선체육대학 학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영일고문이 연설하였다.

그는 조일우호친선협회와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체육평화교류협회사이의 평양대리사무소개설에 관한 합의서의 조인을 축하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일본의 여러 인사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긴밀히 해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마쯔나미 겡시로 리사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자기들을 따뜻이 맞이하고 환대해주는데 대해 그는 사의를 표하였다.

그는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일조사이의 우호관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우리 예술인들이 제7차 세계하모니카콩클에서 상과 상장들을 받았다

도이췰란드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제7차 세계하모니카콩클에서 우리 예술인들이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콩클에는 우리 나라와 도이췰란드, 로씨야, 말레이시아, 이딸리아, 프랑스 등 30여개 나라의 연주가들 250여명이 참가하였다.

4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이 콩클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하모니카연주가들과 악단들이 실력을 겨루는 최고수준의 하모니카경연대회이다.

우리 예술인들은 능란한 연주솜씨로 높은 기량을 요구하는 종목들을 잘 형상하였다.

반음계하모니카독주종목에서 2위를 쟁취한 림명산과 반음계하모니카2중주종목에서 3위를 차지한 리광, 림명산이 상과 상장들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발전소마을의 새 모습

수풍발전소에서

최근년간 수풍로동자구의 모습이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수십동의 소층살림집들이 일떠서고 새집들이를 한 불밝은 창가들마다에서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발전소마을에 새 풍경이 펼쳐지게 된데는 수풍발전소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몇해전 어느날 저녁이였다.

당의 신임에 의하여 발전소당사업을 맡게 된 초급당비서 리순철동무는 종업원들의 생활실태를 료해하던 과정에 한 로당원으로부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든다면 얼마든지 이미 짓고있던 소층살림집건설을 다그쳐 끝낼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였다.

(살림집건설을 다그쳐 기술자, 기능공들이 좋은 집을 쓰고 살게 하자.)

이런 결심을 안고 그는 지배인 서운기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마주앉아 살림집건설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그 과정에 세멘트와 목재를 비롯한 많은 건설자재를 해결할 방도를 찾게 되였다.

자재문제가 풀리자 발전소에서는 수십명의 로동자들로 돌격대를 무었다.

초급당비서는 살림집건설의 시공주가 되여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좋은 살림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창문과 출입문을 비롯한 마감건재도 제일 좋은것으로 달아주도록 하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발전소마을에는 현대적인 소층살림집이 일떠서고 12명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새집들이를 하였다. 이렇게 기술자, 기능공들을 위한 살림집건설을 완공한 발전소에서는 해마다 낡은 살림집들을 털어버리고 가까운 몇해안에 8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일군들은 세멘트, 목재와 기와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그러자니 힘에 부칠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일군들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되새기며 앞채를 메고 살림집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

이런 헌신적인 투쟁속에 발전소마을은 해마다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발전소에서는 해마다 수십세대씩 건설한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제대군관들과 오래동안 발전소에서 일한 공로있는 종업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였다.

그때마다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일군들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뜨겁게 느끼군 하였다.

일군들은 몇해안에 낡은 살림집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발전소마을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킬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뿐만아니라 실내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갖춘 수풍원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 자재준비를 선행시키면서 기초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오늘의 발전소마을도 좋지만 래일의 그 풍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발전소의 일군들은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뜨거운 조국애를 안고

대흥청년영웅광산 무학분광산 녀맹원들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너도나도 떨쳐나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미더운 녀성들속에는 대흥청년영웅광산 무학분광산의 녀맹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사업과 생활의 실천투쟁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취재길에서 한 일군으로부터 광물증산에 떨쳐나선 남편들을 도와 한몫 단단히 해나가고있는 녀맹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알고보니 그들은 20여년전 광산에 탄원하여 광부들로부터 친어머니, 친누이로 불리우고있는 고경옥동무와 대흥청년영웅광산 무학분광산의 녀맹원들이였다.

우리와 만난 일군은 이곳 녀맹원들의 투쟁기풍과 일솜씨를 두고 모두가 감탄한다고 하면서 녀맹일군인 고경옥동무를 비롯한 녀맹원들에 대하여 자랑담아 이야기하였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광산에 수백명의 녀맹돌격대가 무어졌다. 돌격대를 뭇던 날 녀맹원들은 자신들의 적은 힘이나마 깡그리 바쳐 광물증산에 적극 이바지할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였다. 그러나 가정주부들인 그들이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광물생산에 온넋을 바쳐가는 남편들의 뒤바라지를 해주어야 하고 자식들과 늙은 부모들을 돌봐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자기 한가정보다 나라일을 먼저 생각하였으며 광산을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묵묵히 바치였다. 그때 고경옥동무와 녀맹돌격대원들이 제일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제대군인들을 위한 살림집건설이였다.

녀성들의 힘으로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한다는것은 힘에 부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대흥땅에 또 하나의 리상촌을 건설해놓음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녀맹조직이 일을 잘한다는 값높은 평가를 받아안게 되였다.

영광의 그날 고경옥동무와 녀맹원들은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광부들과 광산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그후에도 그들은 광물증산을 위해 자신들의 순결한 마음을 다 바치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원물자와 노래를 안고 광부들을 찾아걸은 막장길은 그 얼마이랴.

그들에게도 힘들 때가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다. 그러나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긍지와 자각을 안고 더욱 아름다와질 광산의 래일을 그려보며 광석수집과 거리와 마을꾸리는 사업, 도로정리사업도 자체의 힘으로 진행하였다.

우리는 영웅광산의 그 이름빛내이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이곳 녀맹원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자랑스러운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대흥청년영웅광산 무학분광산의 녀맹일군인 고경옥동무와 녀맹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일터마다에서 광물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홍 창 혁

농업과학원 벼연구소에서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해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웬 껌 뚜 공업 및 상업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이 5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열렬한 애국심을 키우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이밖에 개선문과 릉라곱등어관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뚜니지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무함마드 알 문씨프 알 마르주끼 뚜니지공화국 대통령에게 황형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0월 30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무함마드 알 문씨프 알 마르주끼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여 강성국가건설을 령도하시는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충심으로 바라는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그이께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호상존중과 리익의 원칙에서 확대강화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일본체육대학대표단 도착

마쯔나미 겡시로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체육대학대표단이 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마철수 조일우호친선협회 서기장, 오창복 조선체육대학 부학장이 맞이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 박영기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통일의 앞길을 밝히는 불멸의 기치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가 구현되여있는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을 통일운동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는 영원한 등대로 심장속깊이 간직하고있다.

고려대학교의 한 대학생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방침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의 통일사상과 로선은 그 어느것이나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분렬의 비극을 가실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길을 제시해주고있는것으로 하여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절대적인 찬동을 받고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핵으로 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에는 외세를 배격하고 자기 힘을 믿는 정신이 힘있게 나래치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그분들의 애국, 애족, 애민의 한평생이 력력히 어려있으며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민족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하고 빠른 지름길을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을 받드는 여기에 통일운동에 나선 우리 청년학생들의 영예와 자랑이 있으며 통일궤도에서 자그마한 탈선도 없이 6.15통일시대를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한 언론인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김정일령수님께서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고 우리 나라의 통일은 조국통일3대헌장에 따라 실현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나는 김정일령수님의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으로 일관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우리 민족이 법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통일조국을 일떠세워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에서 재야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통일좌표와 민중의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통일경륜이 집대성된 조국통일3대헌장이야말로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이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위업에 바쳐진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의 로고와 심혈, 통일의지와 신념의 응결물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있기에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자주통일의 궤도를 따라 억세게 전진하고있다.》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난 어느 한 재야인사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수님의 자주통일사상과 민족대단합경륜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할 통일대헌장이다. 그분들의 통일방략대로만 한다면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위업은 꼭 성취된다. 때문에 우리 민중은 이북의 통일로선을 받들어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

이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의 진리성과 거대한 생활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남녘겨레들의 진심어린 목소리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자주통일사상과 로선들은 조국통일의 앞길을 비쳐주는 등대로 되고있으며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려올수 있었다. 하기에 남녘겨레들은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용약 떨쳐나서려는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는것이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공감하며 통일위업실현의 불멸의 기치로 믿고 따르는 남녘의 민심을 담아 출판물에 발표한 론문에 이렇게 썼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등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에 담겨진 방안과 방도들은 유일무이하고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이며 조국통일의 열쇠로 된다. 이처럼 훌륭한 조국통일의 방략과 설계도가 집대성된 3대헌장을 우리 민중이 어찌 지지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 헌장을 지지하고 받들어 반드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건립해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다.》

부산의 한 언론인도 자기의 글에서 조국통일3대헌장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론증하면서 《이남의 뜻있는 사람들은 북의 통일방침들에 공감할뿐아니라 적극 지지옹호하고있다. 서로 주고받는 말들에도 흔히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수의 저작들의 사상과 명제들이 오르고있으며 그분들의 통일방략인 조국통일3대헌장을 깊이있게 해설하는 글들도 많이 나돌고있다.》라고 썼다.

광주의 한 지식인은 《이북의 통일방략은 온 겨레를 조국통일위업실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그것은 이북의 통일방략이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 민족의 힘을 합쳐 통일운동을 앙양시키며 통일의 상상봉에 오를수 있게 하는 최선의 길을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통일방략이 있어 민족의 통일운동은 반드시 승리의 령마루에 올라서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민족번영의 래일을 희망과 락관속에 그려보고있다.

그들의 절절한 웨침은 오늘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최근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치시는 평화수호의 정치,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정치인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하며 적극 따르고있다.

그들은 《김정은제1위원장의 탁월한 사상리론적풍모와 높은 령도적자질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우리 겨레는 그분의 활동에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보고있다. 그분은 진정 온 세계가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우러러보게 하겠다는 배짱을 지니신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령장이시다.》라고 칭송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선군령도가 있기에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통일조국의 창창한 래일이 밝아온다는 확신을 표명하고있다.

그렇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이 민족의 통일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조국통일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장윤남

심사가 뒤틀린자들의 앙탈

지금 우리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창조와 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날로 커가고있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가 시대의 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서 사람들이 기쁨을 금치 못하고있다. 마식령스키장이 세상에 둘도 없는 스키장으로 일떠서는 속에 세포등판이 대규모의 축산기지로서의 자기 면모를 드러내며 보다 휘황할 인민의 래일을 약속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이 놀라운 전변을 두고 온 세계가 경탄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는 지금 유독 남조선괴뢰들만은 원새끼를 꼬며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괴뢰패당은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과 보수언론들을 내몰아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파렴치하게 외곡하고 헐뜯는 악담질을 늘어놓는가 하면 도발적인 삐라살포놀음을 벌리면서 대결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공화국의 모습에 속이 뒤틀리고 기가 질린자들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우리 당의 은혜로운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해 인민들의 만복이 활짝 꽃펴나는 공화국의 현실을 권력과 돈밖에 모르고 반역만을 일삼는 괴뢰들이 함부로 걸고들며 너덜대는가.

괴뢰보수패당은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짓밟고 그들의 요구를 한사코 가로막는 민중의 원쑤들이다.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신파적인 연기로 민심을 홀리며 《기초년금제도입》이니, 《경제민주화》니 하는 실속없는 고무풍선공약들을 잔뜩 늘어놓았던 보수패당은 집권후 불과 반년 남짓한 사이에 그 숱한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졌다. 집권기간 《선거》공약들을 모두 하늘로 날려보내 1등거짓말쟁이로 소문났던 리명박역도도 그런 《실적》은 올리지 못했다는것이 여론의 일치한 비난이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주의실현에 대한 인민들의 한결같은 열망을 짓밟으며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을 총발동하여 사상류례없는 《선거》부정협잡행위를 거리낌없이 저질렀으며 이제 와서 그것이 날날이 폭로되자 파쑈폭압과 《유신》독재부활책동으로 최악의 집권위기에서 헤여나보려고 미친듯이 발악하고있다. 괴뢰통치배들의 반역적악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은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 더이상 이대로 살수 없다는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목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고있는것이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그런데 괴뢰보수패당이 찌그러져가는 제 집안일에나 신경쓸 대신 못된 악습을 되살려 왕청같이 동족을 걸고들며 모략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은 내외의 조소만을 자아내고있다. 제 집 꿰진 창호지구멍으로 내다보며 남의 집대문모양이 어떻다고 흉질하는것만큼이나 어리석고 못난 처사이다. 자기 집마당에 쌓여있는 오물더미는 못 본척 하면서 뻔뻔스럽게 남을 시비질하는 괴뢰보수패당은 저들의 추태가 얼마나 보기 민망스럽고 창피스러운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괴뢰보수패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히 민족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는 무엄한 망발들을 계속 쏟아내고있는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우리는 최고존엄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추호의 타협도 모른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함부로 도전해나서는 천하의 역적무리들은 그 누구도 무사할수 없으며 첫번째 타격목표, 무자비한 벌초대상이라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의지이다. 괴뢰보수패당은 이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남조선괴뢰들이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위기에서 헤여나기 위해 반공화국악선전에 열을 올리면서 우리의 체제와 존엄에 먹칠을 해보려고 발악해도 그 어지러운 손으로 하늘의 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 적대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이 땅우에 인민의 만복이 꽃펴나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우리의 진군은 더욱 빨라질것이다.

리효진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여러 나라 신문 글 게재, 타이단체들 성명 발표

로씨야, 영국신문이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는 남조선괴뢰보수패당의 책동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로씨야신문 《브레먀 뻬레몬+TV》 10월 30일부는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과 《새누리당》패거리들이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저들의 장기집권야욕과 정파적목적을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정당, 단체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탄압말살하는 현 괴뢰보수집권세력의 비렬하고 파쑈적인 정치모략극의 극치이다.

지금은 지구상에서 반공과 파쑈의 가증스러운 광풍이 어지럽게 몰아치던 20세기 초엽이 아니다.

그러나 식민지파쑈통치가 지배하는 남조선에서만은 구시대적인 악법들이 판을 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 《정권》에 저항하는 정치적반대파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거리낌없이 감행되고있다.

오늘의 남조선은 말그대로 정치적자유도, 인간의 권리도 완전히 말살된 정치무풍지대, 파쑈의 란무장이다.

심지어 괴뢰보수패당은 통합진보당을 《북과 련계된 체제전복세력》으로, 당의 강령을 《위장된 북의 강령》으로 여론을 오도하면서 저들의 비렬한 정치모략을 합리화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정당, 단체들은 정의와 진보를 유린말살하려는 괴뢰보수패당의 살벌한 파쑈폭압사태를 단죄하는 투쟁을 적극 벌릴 때 민주화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길것이다.

민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공정한 여론과 정당들도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 련대투쟁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영국신문 《프로레타리안》 10-11월호는 《남조선에서 탄압당하고있는 통합진보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당한 당강령이 정치적탄압의 리유로 된다면 이것은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의 허황성과 현 《정권》의 독재적성격을 낱낱이 드러내놓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

타이단체들이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는 남조선괴뢰보수패당의 책동을 규탄하여 10월 3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은 지금 남조선은 파쑈와 불법이 판을 치는 독재통치시기로 되돌아가고있다고 하면서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는 현 보수집권세력과 《새누리당》패거리들의 진보정당말살책동을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세력의 통합진보당강제해산책동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민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공정한 여론들도 남조선보수세력의 합법적인 정당말살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타이조선친선협회는 오늘의 남조선은 정치적자유도, 인간의 권리도 완전히 말살된 정치무풍지대, 파쑈의 란무장이라고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나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있으며 지어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좌익정당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있다.

우리는 남조선보수세력의 통합진보당말살책동을 막아나설것을 민주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에게 호소한다.

내외의 경계심을 자아내는 군사적공모결탁

얼마전 남조선의 한 신문은 최근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적극 가담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미국의 핵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핵전략수단들을 동원한 전쟁불장난소동을 련일 벌려놓는 괴뢰들의 도발적인 움직임에 주변나라가 강한 반응을 보이며 그에 강력히 대처해나가고있는데 대해 전하였다. 주변나라의 대응은 당연한것이다.

괴뢰호전광들이 《북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미국과 《맞춤형억제전략》을 정식 꾸며내고 상전의 미싸일방위체계에 가담하는것과 동시에 핵전쟁불장난소동을 뻔질나게 벌려놓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 정세는 갈수록 팽팽해지고있다. 핵전쟁발발을 예고하는 이 위험천만한 사태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주변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심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지난 10월 2일 괴뢰들은 미국과의 제45차 《년례안보협의회》에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계획인 《맞춤형억제전략》문서에 정식 맞도장을 눌렀다. 특히 호전광들은 《맞춤형억제전략》의 실행을 위해 미국의 핵우산은 물론 미싸일방위체계까지 총발동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뇌까렸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은 물론 주변나라들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모험적인 미싸일방위체계구축놀음은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전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틀어쥐기 위한 세계제패전략의 한 고리이다. 내외전문가들은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가 《방어》를 목적으로 한것이라고 광고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중, 장거리미싸일들로 상대방을 정밀타격할수 있는 공격체계에로 전환될수 있다고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매우 심각한 군사적위협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조선괴뢰들에게 미싸일방위체계에 참가하라고 여러모로 압력을 가하였다. 그것이 괴뢰호전광들을 북침전쟁도발과 아시아침략의 돌격대로 적극 써먹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괴뢰들은 《북의 핵, 미싸일대응능력》에 대해 떠들며 독자적인 미싸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척 하지만 실지로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적극 가담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것이 주변나라들을 자극하고있다.

괴뢰들이 지금 그 도입을 서두르고있는 선제타격체계인 《킬 체인》도 마찬가지이다. 괴뢰호전광들이 《킬 체인》계획을 작성할 때 그것이 미국의 군사작전체계에 종속되는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미싸일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정보를 거의 100% 미국에 의거하고있는 괴뢰들이 별도의 미싸일타격체계를 개발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결국 그것은 미국의 미싸일공격체계와 결합되여 조선반도의 범위를 넘는 군사적위협을 조성하게 될것이다. 괴뢰호전광들은 이미 미국의 승인밑에 사거리가 800km이상에 달하는 탄도미싸일개발에 착수하였고 사거리 1 000km이상의 순항미싸일을 보유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주변나라들의 우려는 더욱 커가고있다.

미국상전앞에 엎드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절하며 군사작전지휘권을 외세에게 영구히 내맡기려 하는 괴뢰들이 《킬 체인》이나 미싸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그것이 누구의 손탁에 의해 좌우지되겠는가 하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미국의 군부우두머리들도 괴뢰들의 미싸일방어체계가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와 《호상 운영》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이것은 괴뢰들이 추구하는 《킬 체인》과 미싸일방어체계가 미국의 작전체계와 밀접히 련계되여있으며 상전의 대아시아침략전략에 철저히 복종되는 한갖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더욱 엄중한것은 괴뢰들이 미국은 물론 조선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재침의 칼을 벼리고있는 일본반동들과의 군사적공모결탁을 더욱 강화하고있는 사실이다. 괴뢰들을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중요한 목적은 그것을 올가미로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하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하는데 있다. 남조선언론들은 괴뢰들의 미국미싸일방위체계편입은 사실상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에 의거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에 말려드는것이며 《내외가 우려하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에 참가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괴뢰호전광들이 조선동해와 남해, 서해에 미핵항공모함을 련속 끌어들이고 일본자위대까지 참가하는 광란적인 련합해상훈련을 벌려놓은것은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이 북침전쟁도발과 아시아침략을 위해 실제적인 가동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태인가. 침략적인 미일상전들을 등에 업고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괴뢰들은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공모결탁이 주변나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되자 어쩔바를 몰라하면서 《립장설명》이니 뭐니 하고 구차스러운 해명놀음에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엎지른 물은 다시 퍼담을수 없듯이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난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과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로서의 정체와 호전적몰골이야 어디에 감추겠는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민족과 아시아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이다. 이에는 아랑곳없이 미일상전들과의 위험한 군사적공조에 명줄을 걸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전쟁의 불구름을 사정없이 몰아오는 괴뢰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괴뢰들은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혀바닥으로 잔꾀를 부릴것이 아니라 외세와의 침략적인 공조와 군사적도발소동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망동부터 걷어치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준

선임독재세력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찾을것을 경고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2일 리명박괴뢰패당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찾을것을 경고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초불투쟁당시 리명박이 청와대 대책회의라는데서 《초불은 누구의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떠들어댄데 대해 언급하였다.

여당과 보수언론 역시 일부 세력이 배후조종하고있다느니, 북의 선전선동과 무관치 않다느니 하는 등 갖가지 음모와 색갈론을 제기해왔다고 비난하였다.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배후세력이 실재했는가 하는데 대한 답변이 5년만에 법원에서 나왔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리명박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전면수입반대 국민대책회의, 참여련대, 진보련대와 해당 단체핵심성원들을 상대로 《경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걸고든 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것은 리명박 《정권》이 그 어떤 특정세력의 지휘에 의한것으로 헐뜯고 모독해온 초불투쟁이 대다수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항의운동이였음을 인정한것으로서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시 공안당국이 유모차를 끌고 초불집회에 참가하였던 애기어머니들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탄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리명박 《정부》의 파탄이 시작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만약 리명박이 시대착오적인 폭압통치를 택하는 대신 민중의 뜻을 받아들였더라면 달라졌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판결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현 집권세력이 자기들을 비판하는 야당과 로조, 시민사회단체들을 《종북좌파》로 몰아대며 마녀사냥에 나서고있기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불법선거의혹을 밝히라는 요구에 로조들의 활동을 문제시하며 여론을 딴데로 돌리는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현 당국의 미래도 암담할것이라고 사설은 경고하였다.

미군유지비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의 전횡을 규탄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진보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0월 30일 괴뢰외교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제침략군유지비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의 전횡을 규탄하였다.

이날 미국은 괴뢰들과 미군유지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려놓고 미군유지비리용실태를 정확히 알수 있게 관련제도를 개선할데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요구를 외면하고 다음해유지비를 1조원이상으로 끌어올릴것을 강요하였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하여 미군이 유지비를 군사건설비의 명목으로 2사단기지이전에 리용하고있을뿐아니라 그 무슨 기념관건설에까지 쓰고있다고 밝혔다.

유지비를 이렇게 탕진하고도 아직 1조원이상이나 남아있지만 미국이 또다시 남조선에 다음해 미군유지비를 끌어올리라고 압력을 가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미군의 불법행위의 원천이 되고있는 군사건설비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이 미군유지비의 리용정형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민중의 리익을 위해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설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불법행위진상을 가리우려는 비렬한 술책을 비난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2일 괴뢰정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의 진상을 가리우려는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1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라는자는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때 전국공무원로조를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야당후보를 지지하도록 불법선거운동을 벌렸다느니 뭐니 하며 야단을 쳤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당지도부의 어중이떠중이들까지 여기에 합세하여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고 고아댔다.

사설은 여당의 이 소동은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진상을 가리우기 위한 전형적인 몸빼기작전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 문제로 되는것은 정보원과 싸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물의를 빚은 사건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박근혜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지지표를 그러모으기 위해 전국공무원로조총회에 특사까지 보내여 축하해주고는 이제 와서 불법을 운운하고있으니 참으로 치졸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하였다.

전국공무원로조에 대한 수사를 주장하는것은 정보원의 불법행위에 집중된 민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진보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것이라고 까밝혔다.

사설은 청와대와 여당이 국면돌파를 위해 이런 얄팍한 수를 짜내는데만 골몰하니 시국이 더욱 얽혀만 가고있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

군국주의부활에 열을 올리는 일본을 단죄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통일운동단체 성원들과 각계층 시민들이 10월 30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1098차 수요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남조선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20여년이 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도 세차게 울려나오고있지만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국주의부활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일제의 전쟁범죄로 하여 피해입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속에 살아가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하루빨리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매국과 독재를 미화하는 반동교육

남조선에서 력사교육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이 서울에서 초등학교학생 278명을 대상으로 력사인식정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이 3.1인민봉기를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며 85%에 달하는 235명이 3.1인민봉기가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있었다. 중, 고등학교학생들의 경우도 별로 다를바없다. 지어 중, 고등학교학생 600여명중 20%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나라가 해방된 년도조차 모르고있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개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하다면 어떻게 되여 남조선에서 학생들이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알지 못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괴뢰보수패당의 반동적인 력사교육과 관련된다.

남조선에서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뉴라이트교학사 력사교과서》문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보수어용학자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은근히 비호하고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친일매국노들을 그 무슨 《성장》의 주역으로 미화하는 《력사교과서》를 만들어냈다. 여기에서는 《5.16군사쿠데타》와 남조선일본 《협정》체결을 그 무슨 《경제발전의 계기》로 외곡하고있으며 미국의 조선민족분렬책동을 찬양하고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고취하고있다. 이런 불순하기 짝이 없는 《력사교과서》에 괴뢰당국은 지난 8월 검정심의 최종합격판정을 내리였다. 격분한 남조선의 각계는 《뉴라이트 교학사 력사교과서》의 검정무효와 완전폐기를 주장하며 들고일어났다. 바빠맞은 괴뢰교육부패거리들은 문제의 《력사교과서》를 수정, 보완한다 어쩐다 하며 각계의 항거를 무마시키려고 꾀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기만적인 놀음에 불과하다.

력사교과서들의 검정문제를 다루는 괴뢰국사편찬위원회에만도 《뉴라이트》계렬의 어용학자들이 수두룩하다. 지난 10월 1일 괴뢰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유영익이라는자는 《일제식민지통치가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시켰다는 터무니없는 《식민지근대화론》을 들고나오고 리승만역도를 미화하는 책을 다섯권이나 집필한 악질보수분자이다. 이자는 며칠전에도 로무현《정권》의 《대북정책》은 《친북정책, 반미정책》이라는 수작을 늘어놓아 야당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편찬위원회 위원인 안병직이라는자 역시 《뉴라이트》력사관을 주장하는자로서 리승만역도와 《유신》독재자의 《치적》을 광고하는 《대안력사교과서》를 들고나와 각계의 규탄을 면치 못했다.

사태의 심각성은 괴뢰집권세력이 보수어용학자들의 력사외곡책동을 비호, 조장하고있다는데 있다. 얼마전 괴뢰교육부가 《심각하게 편향된 력사판》을 운운하며 진보적학자들이 집필한 7종의 고등학교력사교과서들을 수정, 보완할데 대한 결정을 내린것은 그에 대한 립증이다. 괴뢰패당이 《균형잡힌 력사교육》이니 뭐니 하고 떠들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진보적계렬의 력사교과서들을 저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쳐 학생들에게 반동적인 력사관을 강제주입하고 사회를 보수화하려는것이 괴뢰집권세력의 속심이다. 《새누리당》패거리들이 교과서들에 《문제가 많았던만큼 당연한 조치》라느니,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느니 하고 떠들어댄것은 우연치 않다.

이런 속에 《새누리당》의 악질보수분자인 김무성이 《교학사 력사교과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망발을 늘어놓아 각계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냈다. 나중에는 전교조가 《교학사 력사교과서》가 채택되지 못하도록 공갈과 협박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교학사》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고아댔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미화하고 친일매국노들의 죄악을 비호두둔하는 반동적인 력사교육의 장본인이 다름아닌 현 괴뢰집권세력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의 청소년들이 우리 민족의 반일투쟁력사를 모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 괴뢰집권세력이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는 반민족적인 력사외곡책동의 필연적산물이다.

남조선에서 《유신》독재가 부활되고있는 속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까지 사대매국적이며 반동적인 력사관이 강제로 주입된다면 그 후과는 참으로 엄중하기 그지없을것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는 괴뢰당국의 력사외곡소동을 친일과 독재에 환장해 날뛴 저들의 어지러운 과거사를 감추고 민중의 항거정신을 거세하기 위한 음흉한 기도의 발로라고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외곡된 력사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의 청소년들을 민족자주의식이 없고 반인민적인 독재통치에 순응하는 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괴뢰보수패당의 책동은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괴뢰패당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심철영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진범인은 미국이다

미국이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위협과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 마치도 우리인듯이 허튼 여론을 계속 내돌리고있다. 최근 미국무성 대변인은 회담재개를 위해서는 북조선의 비핵화사전조치가 우선시되여야 한다는 미국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느니,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것이라느니 뭐니 하였다. 이보다 앞서 미국무장관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운운하며 그 무슨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그것이 해결되면 우리와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떠들어대였다.

미국이 조선반도정세를 위험국면에로 몰아간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합리화하며 국제적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 압박분위기를 조성해보려고 발악한다고 하여 진실이 가리워지는것이 아니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정세를 몰아온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지난해말 우리의 정정당당한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발단으로 더욱 강화된 미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가 이해가 저물어가는 오늘까지 지속되고있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새 전쟁책동의 초점이 우리 공화국에 돌려진 올해에 조선반도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였다.

년초부터 미호전세력은 우리 공화국을 기습선제타격하기 위한 최신형 무장장비개발과 배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전략핵무력의 과반수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집중되였다. 지하구조물파괴용폭탄인 《벙커 버스터》의 주되는 사용대상의 하나를 우리 나라로 정한 미국은 그 시험을 다그쳤다.

미국은 조선반도《유사시》에 지하구조물파괴용폭탄을 탑재한 스텔스전투기 등으로 우리 나라의 군사전략적대상들을 불의에 공격하여 무력화시키려고 획책하였다. 미호전광들은 레이다감시망을 뚫고 후방깊은 곳까지 침투해들어가 지하구조물들을 파괴할수 있는 폭탄을 대량 탑재하며 전세계 어느곳이든 ４０시간안에 도달할수 있다고 하는 《B－２》스텔스폭격기들을 괌도로 이동배치하려 한다는것을 공개하였다. 미국이 초대형지하관통폭탄시험을 진행하고 스텔스전투기를 조선반도와 가까운 지역에 잠정배비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당국자들은 그것이 조선반도《유사시》 우리의 핵과 미싸일기지에 대한 《정밀타격》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의 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정밀타격》을 목적으로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을 보인것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위험한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올해에 북침전쟁연습을 주기적으로 벌려놓았으며 그때마다 초대형핵항공모함과 이지스함, 핵잠수함 등 방대한 핵공격수단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투입하였다.

년초부터 미해군 １１전대소속 핵잠수함 《쌘프랜씨스코》호와 이지스순양함 《샤일로우》호가 조선동해상에서 남조선괴뢰군과 련합대잠수함연습을 감행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미제７함대소속 항공모함도 조선반도수역으로 기동하였다. 이것들은 미해군무력에서 중추를 이루는 함선들이다. 호전광들은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장비한 핵잠수함의 내부까지 언론에 공개하며 광기를 부리였다. 적들이 그 누구에 대한 《강력한 경고》니 뭐니 하고 떠든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위압감을 주자는것이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군이 남조선괴뢰공군과 함께 《실전의 분위기》를 운운하며 벌려놓은 《전시작전준비훈련》에서는 련합공격편대훈련, 반격작전, 긴급공중엄호, 근거리공중지원, 작전정찰 등을 내용으로 한 연습들이 감행되였다. 바다에서는 대규모적인 해상기동훈련이 광기를 띠고 감행되였다. 조선동해에서 탄도미싸일탐지와 추적, 대함사격, 잠수함탐지와 추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발적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한 호전광들은 련이어 《련합작전능력배양》을 떠들며 어뢰공격대응훈련, 해상초계기탐색 및 공격훈련 등 련합대잠수함훈련을 또다시 벌려놓았다. 미해병대가 괴뢰해병대와 함께 남조선강원도 평창의 산악지대에서 벌려놓은 겨울철혹한기련합훈련은 더욱 광란적이였다. 이 전쟁연습에서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장진호반에 기여들었던 미해병대의 이른바 《전투경험》에 토대하여 혹한기환경극복, 생존능력강화, 침투, 타격작전훈련이 맹렬하게 벌어졌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３월과 ４월에 감행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핵전쟁책동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 합동군사연습에는 １００여발의 핵탄을 적재한 미제침략군의 핵동력초대형항공모함타격집단과 전략폭격기 《B－５２》를 비롯하여 지상,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이 대량 투입되고 남조선괴뢰들과 영국, 오스트랄리아를 포함한 여러 추종국가무력까지 동원되였다. 이것은 말이 훈련이지 《핵전파방지》라는 구실밑에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국의 전쟁각본에 따라 감행된 핵시험전쟁이였다. 미국이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핵항공모함타격집단과 전략폭격기들을 포함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실동단계에 진입시킨것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다.

미국본토에는 우리를 겨냥한 전략핵미싸일들이 림전태세에 있고 태평양방면에서는 핵타격수단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쓸어들었다. 미호전세력들은 괌도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전개되여있는 핵전략폭격기 《B－５２》편대와 핵잠수함의 조선반도에로의 출격과 훈련내용을 전례없이 언론에 공개하면서 광기를 부리였다. 북침핵전쟁준비상황을 최종점검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날아든 미군부 우두머리는 미군부가 제２의 조선전쟁에 최우선권을 부여하고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미국은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란것까지 공개하였다. 그것은 곧 선제공격을 노린 호전광들의 광기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런것을 상상해보라. 어느 나라든 자기의 가까운 령해에 핵잠수함들과 항공모함타격집단이 림전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레이다에 포착되지 않고 초음속상태에서도 폭탄투하가 가능하고 ２５０㎞밖에서 적아를 식별한다고 하는 스텔스전투폭격기편대들이 자기측지역에 대한 폭격훈련을 빈번히 벌리고있는 상황을.

자기 나라와 린접한 곳에 집결된 방대한 전략핵무력들이 임의의 시각에 선제공격, 전면전쟁에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있는 상황에서 악명높은 전략폭격기 《B－５２》가 수차례 날아들어 핵공격연습을 벌리며 침략전쟁의 화약내를 질게 풍긴다면 그것을 어느 나라가 과연 수수방관할수 있겠는가.

미국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５월초 서해일대에서 《적》잠수함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련합반잠훈련을 감행하였다. 중순에는 동해와 남해일대에서 항공모함타격훈련을 기본으로 한 련합해상훈련을 감행하였다. 거대한 항공모함전투집단의 타격훈련으로 조선동해일대는 하나의 대전장으로 화하였다. 전략핵폭격기, 핵동력항공모함, 핵동력잠수함을 비롯한 전쟁장비들이 투입된 이 군사연습소동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할것을 노린 최악의 핵공갈책동이였으며 그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말그대로 핵전쟁문어구에 이르렀었다.

미국이야말로 련이은 전쟁연습으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조선반도정세를 항시적으로 악화시키는 장본인이다.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핵전쟁책동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전으로 번져지지 않은것은 전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한 우리의 인내성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미국은 대화타령을 늘어놓는 막뒤에서도 핵전쟁연습의 화약내를 피우고있다. 최근 동서남해에서 항공모함의 참가밑에 벌어진 군사적광기는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은 달라진것이 전혀 없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문제들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어떻게 해서나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국면에로 몰아넣고 그에 대처한 우리의 대응조치를 문제삼아 전쟁을 일으키자는것이 적대세력들의 진의도이다.

미국이 속에도 없는 불가침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우리에게 그 무슨 《사전조치》요 《국제의무준수》요 하는것을 강요하는 목적은 불보듯 뻔하다. 그것은 우리더러 선핵포기를 하라는것이다. 선핵포기란 곧 무장해제이다. 무장해제가 전쟁을 불러온다는것은 새 세기에 미국이 벌린 전쟁들이 보여주었다. 이라크사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한다는 구실밑에 무장을 해제하고 주권국가를 전복하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미국은 상대가 반세기이상에 걸친 핵공갈을 짓부셔버린 당당한 핵보유국이라는것을 상기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미국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위협과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마치도 저들이 그에 관심이 있는듯이 떠들어대지만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행정부가 떠드는 《비핵세계》구상은 저들의 핵우위에 의한 세계제패야망실현책동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병풍에 불과하다. 오늘 《비핵세계》의 간판밑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열핵전쟁위험성은 날을 따라 더욱 커지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에서는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면서도 핵무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위협과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고아대고 《비핵세계》구상을 요란하게 광고한 현 미행정부의 정체는 바로 이러하다.

세계평화와 안정파괴의 주범,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장본인인 미국과 전쟁상태에 있는 우리가 전쟁접경에로 치닫는 정세를 수수방관할수 없다는것은 구태여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화와 협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립장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걸하지 않는다. 공정한 여론은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여도 미국은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불가침제안은 조선에 있어서 무서운 함정이라고 까밝히고있다.

우리에게서 《선핵폐기》를 바라는것은 어리석고 우둔한짓이다. 선군조선의 권위가 높아지고 국력이 강화되는데 질겁한자들의 잡소리에 놀라 선택을 바꿀 우리가 아니다. 미국의 핵공갈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천백배로 강화될것이다.

리 현 도

《미국은 조선에서 무엇을 억제하려 하는가》

로씨야통신의 론평

로씨야인터네트통신 《로스인포 네트》가 최근 《미국은 조선에서 무엇을 억제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론평을 올렸다.

론평은 미국과 남조선, 일본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련합해상훈련을 벌린데 대하여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핵동력항공모함까지 참가한 훈련의 목적이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을 련마하는것이라고 평하고있다.

흥미있는것은 이 훈련이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조선을 반대하는 그 무슨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이 채택된것과 때를 같이하였다는것이다.

핵무기를 포함한 가장 현대적인 무기로 타격단을 편성하였다고 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강력한 타격단으로 무엇을 억제한단 말인가.

한마디로 조선이 제안하고 거듭 확인하고있는 평화통일을 반대한다는 말로 되는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론의할 때 조선에서는 북남통일은 련방제로 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남조선의 주장과는 달리 조선의 제안은 련방제방식으로 통일이 이룩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조선의 제안은 론의할 여지없이 정당한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1980년 10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것이다.

조선인민의 통일지향을 반대할수 있는 그 어떤 적중한 설명을 찾기는 힘들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에서는 동족과 통일을 론의하는것보다 외세와 통일을 억제하는 핵타격에 대하여 론의하는것이다.

그런 행위가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는가 하는것은 관계없다.

남조선당국은 오래전부터 오로지 미국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여왔으며 미국재벌들과 긴밀히 련계되여있다.

미국에 있어서 중국과 로씨야를 견제하기 위한 발판인 남조선을 잃는것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는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자기의 괴뢰와 함께 조선인민의 통일지향을 억제하려 하는것이다.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무장관이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는 궤변을 늘어놓은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자는 조선의 립장은 일관하지만 조선이 항시적으로 미국의 핵위협속에 있고 미국이 자기의 의무는 전혀 리행하지 않으면서 대조선적대행위를 날을 따라 더욱 로골화하고있는 한 조선은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이 일관하게 주장해온것처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철회되기 전에는 조선반도비핵화는 절대로 불가능하게 되여있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의를 행동으로 실증해보이지 않는 한 조선이 6자회담재개를 위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있을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나라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로씨야의 인떼르팍스통신, 《로씨야의 소리》방송, 인터네트잡지들인 《렘취취》, 《마르12》, 우크라이나 인터네트신문 《오벡찌브나야 가제따》, 네팔신문 《네팔 투데이》는 《조선 미국무장관의 망발을 규탄》 등의 제목으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로스또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인터네트홈페지들도 대변인대답의 전문을 올렸다.

항의집회와 시위

뽀르뚜갈의 리스봉에서 1일 당국의 그릇된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당국이 새로운 긴축조치들을 취하려 하는데 항의하여 일어난 집회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국회청사앞에 모여 반인민적인 긴축조치들을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10월 31일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정부가 인민들의 생활처지에는 아랑곳없이 긴축조치를 취하려 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그러한 시도를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인도네시아인들 미국대사관페쇄를 요구하는 집회 진행

녀성들의 사회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라오스에서 녀성들의 사회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 나라 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10월 29일부에 의하면 정부는 이미 녀성진보에 관한 2011—2015년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전략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을 강화하고 녀성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근절하는데 있다.

현재 이 나라의 공업과 무역부문에서는 녀성들의 비률이 40%이상에 달하고있다.

앞으로 정부는 정치, 사법 등 여러 사회활동에 녀성들을 적극 참가시킬것이라 한다.

파키스탄에 계속되는 대한 미군의 공습만행

미군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에 대한 무인기공습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일 미군무인기가 북부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4기의 미싸일을 발사하였다.

결과 4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군의 공습만행은 파키스탄인민들속에서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있다.

식물의 꽃피는 시기를 결정하는 유전자 발견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집단이 식물의 꽃피는 시기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발견하였다.

연구집단은 씨뿌리기로부터 꽃이 필 때까지의 기간이 일반식물에 비하여 2~3배 오랜 특수한 유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꽃피기호르몬의 량을 조절하는 《PHL》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여있었다는것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성과는 《PHL》유전자의 작용을 활성화시켜 원예용꽃을 속성재배하거나 꽃피기를 지연시켜 농작물의 수확시기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말리에서

말리정부가 10월 31일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은 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떠돌아다니는 학령어린이들을 찾아내여 그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기본목적을 두고있다.

정부가 계획실현에 많은 자금을 돌리고있다 한다.

가나에서

가나정부가 최근 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나라에서는 1일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칠수 있는 재능있는 젊은 체육선수들을 찾아내고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수행에 착수하였다.

특히 륙상선수후비들에 대한 훈련강도를 높여 륙상에서 세계패권을 쥐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2014년에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 및 국제경기들을 주최하게 된다.

케니아에서

케니아정부가 최근 내각회의를 열고 새로운 다리, 고속도로, 살림집들을 건설하고 비행장들과 상하수도망을 현대화할데 대한 47건의 대상공사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칠레에서

칠레에서 최근 새로운 도시개발정책을 수립하였다.

정책은 앞으로 50년동안에 나라의 도시들의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며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계획들을 포괄하고있다.

정책의 성과적인 실행을 위해 상설자문리사회가 수립되는 등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습근평총서기 살림집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해 언급

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10월 29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제10차 집체학습에서 한 연설에서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을 넣을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살림집문제는 인민생활문제일뿐아니라 발전문제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살림집공급을 늘이는 동시에 살림집에 대한 인민대중의 수요를 중요한 위치에 놓고 경제적이고 환경보호적이며 자원절약형이고 통일적이며 안전한 살림집표준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분야에서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들은 조직적령도를 강화하고 제반 과업과 정책적조치들을 리행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막대한 예산적자

미국에서 9월말에 끝난 2013회계년도에 련방예산적자가 6 800억US$에 달하였다.

10월 30일 미재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실업자 증대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심각한 경제위기의 후과로 실업자가 증대되고있다.

10월 31일 유럽동맹 통계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9월에 동맹성원국들에서 실업자수가 2 687만 2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달에 비해 6만 1 000명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콜레라피해 확대

나이제리아에서 콜레라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10월 28일 이 나라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수가 7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들을 계속 취하고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건설책동을 비난

도이췰란드정부 대변인이 1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집요한 유태인정착촌건설책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이 강점한 팔레스티나령토에서 3 000여채의 유태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계획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이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계획이 팔레스티나와의 협상과정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산화탄소방출량 증대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방출량이 계속 늘어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네데를란드환경조사기구와 유럽동맹위원회 공동연구쎈터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세계적인 이산화탄소방출량이 345억t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최고기록으로 된다고 한다.

교통사고

방글라데슈의 다카에서 최근 2대의 뻐스가 충돌하여 6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짐바브웨의 동남부지역에서는 화물차가 마주오던 유조차와 부딪쳐 수십명의 사상자가 났다.

* *

인디아의 안드라 쁘라데쉬주에서 10월 30일 달리던 뻐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0여명이 사망하였다.

같은 날 케니아의 나이로비에서는 달리던 렬차와 뻐스가 충돌하여 10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브라질에서 월드컵경기대회주최를 위한 준비사업

브라질정부가 2014년 월드컵경기대회주최를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최근 나라에서는 경기대회기간 봉사활동을 강화할 목적밑에 주요정부성원들로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위원회는 경기들이 진행되는 12개의 주요도시들에서 봉사부문사업을 통제하고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100여개의 관광쎈터를 새로 내오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있다.

이 나라에서 월드컵경기대회기간 국내외의 관광객수는 도합 360만명에 달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 힘을 넣는 로씨야

최근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

지난 １０월 벨라루씨의 수도 민스크에서 진행된 여러 회의들이 그 뚜렷한 립증으로 된다.

２４일에는 독립국가협동체 외무상리사회 회의와 유라시아최고경제리사회 회의가, ２５일에는 독립국가협동체 국가수반리사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을 비롯한 회의참가자들은 이번에 진행된 회의결과에 만족을 표시하고있다. 외신들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있다.

회의들이 경제와 법 등 여러 분야에서 로씨야와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사이의 협조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는것이 분석가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회의들에서는 《２０１４년을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서 관광의 해로 선포할데 대한 결정》, 《２０１５년을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서 １９４１－１９４５년 위대한 조국전쟁로병들의 해로 선포할데 대한 결정》 등 수십건의 문건들이 채택되였다.

지금으로부터 ２０여년전인 １９９１년 １２월 ８일 민스크에서 로씨야, 벨라루씨, 우크라이나 세 나라사이에 독립국가협동체창설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그해 １２월 ２１일에는 까자흐스딴의 알마띠에서 아제르바이쟌, 아르메니야, 까자흐스딴, 끼르기즈스딴, 몰도바, 따쥐끼스딴, 뚜르크메니스딴, 우즈베끼스딴 등이 독립국가협동체창설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하고 《알마띠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민스크에서 단일한 공간에서의 지역적협조와 발전을 지향하는 회의들이 열리고 중요한 결정들이 채택된것이다.

지난 ２０여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분렬리간책동을 벌리면서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사이에 모순과 대립을 조장시켰다.

로씨야—그루지야사태, 체츠냐문제, 몰도바정세, 나고르노—까라바흐분쟁 등이 그 결과물이다.

최근 시기에는 미국과 서방세력이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사이에 쐐기를 박으려 책동하고있다.

우여곡절이 겹쳐드는 현정세하에서 지역의 안전보장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있는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은 단합된 힘으로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려 하고있다.

무역경제협조의 확대발전전망과 법분야에서의 협조, 문화 및 인도주의에 관한 문제들이 론의된 독립국가협동체 국가수반리사회 회의에서 한 뿌찐대통령의 연설은 지역적협조와 발전을 지향하고있는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 커다란 고무와 지지로 되고있다.

연설에서 그는 경제분야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세계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사이의 지역적인 경제통합과정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법분야에서 호상협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범죄와의 투쟁에서 정보기술을 도입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였다.

회의에서는 환경보호문제들도 토의되였다. 여러 요인으로 하여 환경보호는 최근에 들어와 이 나라들에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더우기 ２０２０년까지 관광분야에서의 협조발전을 우선적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는 이 나라들에 있어서 환경보호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로씨야와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앞에 후대들이 전승의 력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는것이 강조되였다. 로씨야는 력사문제인식에서 하나의 력사관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주장하고있다.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간을 비롯한 지역적인 경제통합에 관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토의된 유라시아최고경제리사회 회의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회의에서는 ２０１５년부터 발효되게 될 유라시아경제동맹조약안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들이 이룩되는 등 지역적인 경제통합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에 대해 벨라루씨대통령은 《이것은 우리의 교제과정에서 이룩된 진일보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조약작성과정을 통해 우리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모든 원칙적인 문제들에서 우리가 현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독립국가협동체 외무상리사회 회의도 다른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의의있는 회의로 되였다.

외무상들은 국제기구들에서의 행동일치보장 등 국제무대에서 지켜야 할 여러 원칙적인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독립국가협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로씨야를 비롯한 이 지역나라들의 노력이 은을 낼것이라고 여론들은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송영

ㄱ-31173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